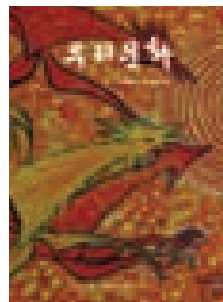


02	칼럼	현대에서 전통문화를 바라봄
05	기획)한국의 문화	한국의 관례
09		한국의 혼례
13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23	문화원탐방	울산중구문화원
29	문화원이야기 I	서천문화원
31	문화원이야기 II	강릉문화원
36	문화원이야기 III	김포문화원
38	연재 I	문화원장에게 듣는 우리나라 이야기
42	함께 읽는 시	하동사람 정공채
44	함께 읽는 수필	간장, 천년을 아우르는 맛
47	특집	우리동네
48		꽃향기 가득한 살고 싶은 우리동네
52		그 동네, 오늘을 바라보다
57		동네의원과 카페의 조우
62		동네에 문화가 찾아오다
68	연합회 사업소개	역사마을 소개
70	연재 II	아리랑 _ 전라도 아리랑의 가락 속으로
78	들여다보기	은은한 등의 속살을 밝히는 사람들
82	책갈피	
84	연합회레이더	우리문화 소식
90		원장동정



표지그림 태양에게 덤비는 수줍음
그린이 김중 광주서구문화원장
위축되어가는 남성성을 상징화한
그림. 태양에게 대적하는 수줍음의
여성적인 모습을 포착하였다. 뾰
족한 부리와 날카로운 뿔, 힘차게
돌진하는 모습과 색채의 강렬함
으로 남성성을 극대화하였음.

등록번호 라36627(1984. 7. 12)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
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이선재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정주환(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최원현(한국수필작가회 회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
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원고는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
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현대에서 전통문화를 바라봄

장면 1.

2001년 2월 하순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악의 미래를 한 무대에서 조감할 수 있는 공연이 서울 종로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젊은 국악 축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당시 공연은 '신 국악' '퓨전 국악'의 모습을 종합한 공연으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외치던 젊은 국악 그룹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출연진을 보면 신 국악 운동의 대표적인 '슬기둥'을 비롯해, 신세대 소리꾼 조주선, 한국의 장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듬 세계를 구축하는 창작 타악 그룹 '푸리'가 출연했다. 여기에 직접 고안한 타악기와 관악기를 이용해 색다른 앙상블을 보여주는 '공명'과 4명의 가야금 연주자로 구성된 '사계' 등이 나와 국악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국악'의 소리를 들려줬다.

장면 2.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치사의 큰 사건이었다. 당시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중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며 전통 산수화 한점을 소개 했다. 평범한 산수화였지만 색다른 장면 하나가 주목됐다. 산속을 가로질러 그려진 송전선과 송전탑이었다. 전통산수화 속에 그려진 송전선과 송전탑, 모택동 체제의 중국이 죽(竹)의 장막에 갇혀 있어 몰랐을 뿐이지 나름대로 근대화를 이루고 있고 근대화의 내용이 그림 속에 반영된 사실이 너무 신기해 36년이 지났지만 생생히 기억된다.



오래된 장면인 두 경우를 예로 든 것은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로 유명한 박지원(朴趾源)이 '옛 것을 모범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이 상기되기 때문이다. '법고창신'은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 중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는 글에서 나온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늘 함께 소개된다. 박지원은 공자에 비해 훨씬 현대에 가까운 인물이어서 그랬을까, 적극적인 자세가 네 글자에서 느껴진다. '온고지신'은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비해 '법고창신'은 '옛 것을 모범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행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젊은 국악 축제는 나날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전통국악의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던 젊은 이들이 '법고창신'한 무대였다. 그들은 기존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대나무로 만들어 공명(共鳴)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국악의 맛을 잃지는 않았다.

송전탑이 그려진 산수화도 '법고창신'이긴 마찬가지이다. 전통 산수화에서는 산은 언제나 산이었고 물은 물일뿐이며 등장하는 인물이 입고 있는 옷도 변화가 없었다. 겸재(謙齋) 정선이 조선시대의 화가로 우뚝 선 것은 이전까지 전승되던 중국화법을 물리치고 한국의 산수와 사람을 그린 '법고창신'을 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입장에서 전통문화를 바라볼 때 한 줄기 희망을 찾는다면 '법고창신' 정신이 뚜렷한 젊은 국악인들이다. 물론 전통적인 국악이나 산수화가 새로운 국악형태에 의해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등에 의해 전승되고 또한 널리 보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법고창신'에서 '법고'에 해당하는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일은 너무나 막중한 일이다.

'법고'한 '전통문화'가 없다면 '창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국가는 국악을 모태로 창신되는 새로운 국악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2000년을 전후 해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는 한류(韓流) 열풍이 불었다. 대중가요와 영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열풍은 전만 못하지만 아직도 위력적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뒤야 할 점은 대중가요와 영화를 통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으나 전통문화를 이용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대중가요나 영화가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인의 삶과 밀착된 주제와 형식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전통 국악이나 전통 무용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유럽의 클래식 음악이 전 세계인의 일부만 사로잡는 것처럼 전통 국악이나 한국무용이 '한류' 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옛 것을 모범으로 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국악이나 한국무용일 것이다. 법고 창신 된 국악이나 한국 무용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 질 것이므로 한류가 될 가능성은 훨씬 높다. 그러나 2001년 한 무대에서 선보였던 '젊은 국악 축제' 는 1회성 행사로 끝났다. 그 후 7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형태의 국악공연이 한류가 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의 부족 탓이다. 영화에, 가요에 투자된 천문학적인 자본을 생각하면 신 국악 운동 참여자는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가발전 동력의 하나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꾀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창신된 국악' 이야말로 한국의 원형질을 담아 세계인의 마음에 새로운 유형의 한류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1세기 초두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통문화는 느티나무처럼 굽은 줄기는 전통의 순수성과 운형을 간직한 채 뻗어 올라가고 줄기를 모티브로 현대인에 맞게 창신된 새 문화 예술은 가지와 잎이 되어 세계인이 즐기는 그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임연철 중앙대예술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의 관례문화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 어린이, 어른을 거치면서 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어린이라는 탈을 벗고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결혼을 하여 이성결합을 했을 때부터 어른으로 취급했던 것일까? 물론 이런 경우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이에 앞서 특별히 어떤 시기를 정해 아주 특별한 의식을 베풀어 준 후, 이후부터 그가 어른, 즉 성인(成人)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하는 한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관례(冠禮)와 계례(笄禮)가 바로 이런 의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성년식

관례(冠禮)는 남자 아이들에게, 그리고 계례(笄禮)는 여자아이들에게 베풀었던 성년의식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혼인 전에 행했던 것으로, 일가친척과 하객을 모시고 이와 같은 의식을 치르게 되면 당사자들은 이제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공인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은 일종의 성년식(成年式, initiation), 혹은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관례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중국의 예교가 전해 들어옴에 따라 전래된 듯하며, 고려 광종 16년에 왕자에게 원나라의 풍속으로 관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고려 때 이미 중국식의 관례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왕족은 물론 양반 사대부 층을 중심으로 관례가 더욱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15세부터 성인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아기를 접지·인태·출생·양육시켜준다고 믿는 삼신할머니도 15살 이전까지만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관례는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조혼을 하거나 상중일 때는 그 시기를 늦추거나 이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가 기년(耨年, 1년) 이상의 복인일 때는 관례는 할 수 없었다.

관례는 정월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 때를 놓치면 4월이나 7월 초하룻날에도 행했다. 날짜가 정해지면 주인은 3일전에 그 사실을 사당에 고하고 손님이라 하여 계빈(戒賓)을 청하여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 자관자례를 행한다. 주인은 관자(冠者)의 조부나 아버지가 되며, 빈은 주인의 친구 중 어질고 예법을 잘 하는 이를 모셔 미리 집에서 묵게 한다. 당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별도로 차린 상위에 여러 가지 의복과 신, 포염, 잔반, 제주(祭酒), 건 등을 올려놓고 의식을 거행한다. 삼가례 중 처음 초가(初加, 혹은 始加)에서는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어른의 평상복을 입힌 다음 머리에 관을 씌우고,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스러워 질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재가(再加)에서는 어른의 출입복을 입히고 머리에 갓을 씌운 다음 모든 언동

(言動)을 어른답게 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삼가(三加)에서는 어른의 예복을 입히고 머리에 복두, 또는 두건과 같은 유건(儒巾)을 씌운 다음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이어서 행하는 초례는 관자에게 술잔을 권하는 의식이다. 술을 땅에 세 번 조금씩 붓고, 천지신명에게 어른으로서의 서약을 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좋은 술로서 제를 지내어 상서로움을 나누니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어 오래 살라는 축사를 한다. 초례에 이어서는 자관자례(字冠者禮)를 한다. 모두 마당으로 내려가 빈객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주고 축사를 하면, 관자는 여기에 답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자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에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지어주는 의례이다. 이제 관자는 관례를 모두 치렀으므로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름을 새로 지어 받는 것이다. 이후 주인과 관자는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모든 의식이 끝났음을 고하고, 후에는 일가친척과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집안에서 큰 잔치를 벌이거나 따로 찾아뵙는다.

술을 배우고 자(字)를 받았던 관례(冠禮)

관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 술을 마시게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과 자(字)를 지어주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게 했던 의식인 초례는 오직 관례에만 있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었으므로 술을 마실 수 있음을 인정했던 것이다. 술은 신(神)과 교통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다. 관례를 통해 술이 가지는 의미나 의의를 올바르게 배우고 알게 하여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술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례의 의의가 있다. 우리 말에 술은 부모 밑에서 배워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초례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은 생평에 있어 4번 이름을 지어 받는다. 태어나서 지어주는 아명, 관례를 치룬 후 받는 자, 중년 이후 학식과 인품이 갖추어졌을 때 친구들이 지어주는 호,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죽은 후 받는 시호(諡號)가 바로 이것이다. 관례 후 자를 새로 지어주었다는 것은 이제 당사자가 어른으로 사회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여자들의 성년식, 계례

계례는 혼인전이라도 여자 나이 15세가 되면 이를 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혼약이 되었을 때 사전에 이를 행한 듯하다. 어머니가 주장이 되어 친척 중 어질고 예법을 아는 부인을 계빈으로 정해 계자에게 비녀를 꽂아주고 배자(背子)를 입게 한다. 후에 사당에 가서 고하고 손님들을 대접한다.

계례를 포함하여 관례는 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성년, 성인이 되었음을 공인해 주는 의식이었다. 당사자는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인격과 대우를 받는 한편 모든 사고와 행동에 책임을 지며 또한 책무와 사명을 감내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물론 이후에 혼인도 할 수 있고, 향교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았다. 관례는 이제 당사자가 사회가 요구하는 성인, 말하자면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성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의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관례는 보통 15세 이상 20세 이하에서 행했으나 조선 중기 이후 임·병 양란을 겪으며 조혼 풍속이 생기자 연령이 낮아져 10세 전후에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10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관례의식을 치루지 않고 그냥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도 생겨났다. 그래서 ‘초립동이’란 말도 생겼다고 한다. 관례는 갑오경장 및 1895년 단발령이 내린 후부터 사라져갔다. 긴 머리가 없어지게 되자 상투를 틀 수도 없었고, 관을 쓸 필요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성년식

성인식, 혹은 성년식은 놀랍게도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많은 민족에서 행해졌던 의식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행했다. 내용은 민족마다 달라 간단한 의식으로 끝내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이들을 부족으로부터 분리시켜 숲속과 같은 곳에 데리고 가 사냥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숨겨 놓은 무엇인가를 찾아오게 하거나 하여 살아서 돌아오면 이제 성인으로서 부족의 일원이 된 것으로 인정하고, 몸에 부족으로서의 낙인을 하거나 표지를 해준 후 다시 집단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어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식이 가지는 의의는 죽음을 상징하는 고통, 고난을 이긴 자만이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에 적응하여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일부러 혹독한 고통이나 고난을 미리 겪게 하는 것이다. V.프로프는 오늘날 남아 있는 수많은 옛날이야기들 중에는 고대의 성년식, 혹은 입사식과 관련된 의례가 옛날이야기로 변해 남아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관례 이전에 이러한 성년식이 있었던 흔적

우리의 경우도 관례 이전에 이러한 성년식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의 고행담, 즉 어두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백일을 견뎌야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고속(古俗)과 관련해 볼 때 여성에게 가해진 성년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혁거세를 동천에서 목욕을 시켰다는 것이나 알영의 입술이 닭의 입부리 같아 냇가에서 씻으니 입술이 비로소 나왔다는 내용도 일종의 성년식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 후 이 둘은 혼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례나 계례는 주로 왕족이나 양반 사대부 층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중인이나 상인들도 이러한 의식을 했던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15세가 되어 성명과 생년간지가 적힌 호패(號牌)를 차게 되면 성인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머슴들은 마을 입구 당나무 아래 무거운 ‘들돌’을 놓아두고, 일정한 무게의 들돌을 들면 성인으로 인정하여 이후부터는 이들에게 어른 몫의 품삯, 즉 세경을 주기도 했다.

현대에 이르러 변모한 성년식과 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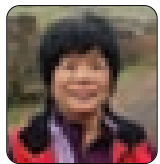
전통사회에 있어 우리의 성년식이었던 관례는 1895년 단발령과 함께 사라져갔다. 현대에 이르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성인식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1973년 처음으로 성년의 날을 제정하여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

들을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지만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지금까지 기념식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나 학교 등에서는 간단히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끝낸다. 가정에 따라서는 성년이 된 자녀에게 축하인사나 선물을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다수이다. 친구끼리 성년이 된 것을 자축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어 가지는 행사도 한다고 하거니와 얼마 전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스무 송이의 장미와 향수, 그리고 핸드백 등이 라 한다.

우리는 만 20살이 된 젊은이들을 위해, 이제 너희들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단한 의식만을 해줄 뿐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1948년부터 1월 15일을 성인의 날로 정해 만 20세가 되는 남녀를 위해 매년 신궁에서 거대한 행사를 열어준다. 물론 이 날은 국민공휴일이다. 이 때 부모들은 아들에게는 지갑을, 딸에게는 핸드백을 선물한다고 하는데, 안에는 재물운을 기원하는 돈을 넣기도 한다. 성인이 되었기에 이제 이들은 마을에서 열리는 마쓰리에도 전통복장을 갖추어 입고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행사에 참여한다.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 우리의 현대적 성년식은 일견 매우 초라하고 의의가 약한 듯하다. 좀더 사회적으로 성년식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고, 행사도 좀 거창하게 하여 전 국민이 함께 새로 어른이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여 그들이 어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동 받고, 감격해 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상징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시기와 주민등록증을 주는 시기, 그리고 투표권을 주는 시기를 통일하여 성인이 되었기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면, 성년식의 효과는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부나 투표권의 나이는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성년식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공인받는 의식이다. 관례 역시 이런 의미의 문화였다. 이렇게 되어 이제 개인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변신하여, 즉 존재론적인 변신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 상황을 준비하고 맞아들일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가올 미지의 세계는 늘 낯설고 불안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성년식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미리 준비된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세시풍속사전(夏), 국립민속박물관, 2005



이수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의 혼례문화 : 그 본디 모습과 변화, 그리고 걱정

조선시대에 확립된 우리의 혼례문화

혼인(婚姻)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와 법이 인정하는 경제적, 성적(性的)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례가 혼례(婚禮)이다.

전통적이라고 하는 혼례는 사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에서 유입된 유교식(儒敎式)이지만 조선시대에 완전한 우리의 문화적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가장 우리다운 민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하여 양가 어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혼인 당사자보다는 집안(가문) 대 집안의 결합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혼례는 원래 6개의 절차로 구성된 주육례(周六禮)가 있었다. 그런데, 『가례 家禮』를 지은 송나라의 주자(朱子, 1130-1200)가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이라는 4개의 절차로 간소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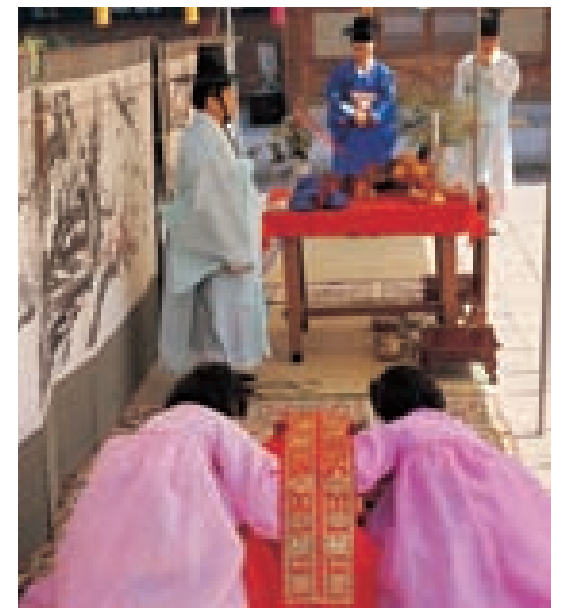
우리의 선조들은 비록 중국식을 수용하였지만 그대로 맹종하지는 않았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친영을 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대례(大禮)를 치르고 초야를 보내는 초행(初行)을 했다는 것이다. ‘장가(杖家)간다’ ‘시집 간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 전통을 이은 것이다.

중매쟁이의 소개에서 혼례에 이르기까지

혼례는 혼기(婚期)에 찬 자녀가 있는 양가에서 중매쟁이를 통해 쌍방의 의사를 타진하는 의혼(議婚)으로 시작된다. 중매쟁이를 통해 상대 가문을 파악하고 혼인 의사를 전달한다. 이에 서로 통하면 ‘혼사(婚事)가 결정되었다’ 고 한다.

통하면, 신랑 집에서 ‘청혼서’를 보내는데 ‘강선(剛先), 강의(剛儀), 강서(剛書)’라고도 한다. 이 때 동봉하는 사주(四柱)로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보고 신부의 생리일을 피해 혼례날을 잡는다. 사주를 받으면 혼인을 승낙하게 되므로 혼인의사가 없으면 사주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청혼서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허혼서(許婚書)와 함께 혼례날을 적은 연길(涓吉, 날받이)을 보낸다. 요즘은



전통혼례 모습

공휴일이 인기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 길일을 중요시했다.

허혼서를 받은 신랑 집에서는 납폐(納幣)를 보낸다. 이것이 '함'으로 납징(納徵)이라고도 한다. 내용물은 간단한 폐물과 혼례날 신부가 입을 치마저고리, 선물 목록을 적은 물목(物目), '혼서지(婚書紙)'를 넣는 것이 전부다. 3가지를 넘으면 사치라 하여 금하였다.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하는 혼서지는 혼인서약서, 혼인 문서이기에 고이 보관했다가 관에 넣어 저승으로 가져간다.

함이 도착하면 신부의 어머니가 받아 깔고 앉아 함에 손을 넣어 잡히는 물건의 색깔에 따라 부부의 길흉과 자식의 성별을 점치기도 한다. 즉, 푸른색이면 길하며 아들, 붉은 색이면 흉하며 딸이라고 한다. 함을 띄 시루에 올려놓고 절을 하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전한다.

전통 혼례의 내용과 순서

혼례날이 되면 신랑은 초행을 한다. 초행에는 청사초롱 2쌍, 기러기를 안은 안부(雁夫; 기러기아비), 신랑, 상객(上客), 그리고 후행(後行)이 따른다.

사모관대(紗帽冠帶)로 정장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일종의 혼인 서약인 전안례(奠雁禮)를 올린다. 이 때 사용하는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어느 한 쪽이 죽더라도 절대로 새로 짝을 구하지 않는 정절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도 기러기처럼 혼인하여 백년해로를 하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 또한 기러기는 철새로서 음양(陰陽)을 알고, 줄지어 나는 질서를 아는 새로, 신랑(양)을 따르는 신부(음)의 순리를 일깨워 준다고 한다.

전안례에 이어 대례를 올린다. 홀기(笏記)에 따라 신랑이 초례청의 동쪽에 선다. 신부는 신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치마허리를 꿰매고, 머리를 올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초례청에 모인 하객들은 명석 위에 도토리나 콩을 뿌려 신랑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한다. 만약 신랑이 콩을 밟고 넘어지거나 하면 한바탕 웃음바다를 펼치려는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다. 혼례의 엄숙함과 정적인 분위기를 장난을 통해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원삼을 화려하게 차려 입은 신부가 오라버니의 부축을 받아 초례청의 서쪽에 서면 대례가 시작된다. 먼저 서로 절을 하여 인사를 나누는 '교배례(交拜禮)'를 한다. 축하객들은 신랑이 고개를 떨 숙인다고 나무라고, 고개를 더 숙이라고 소리치는 등 장난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합근례와 신방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어서 행하는 '합근례(合?禮)'는 술을 서로 교환하여 마심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청실과 홍실로 이어 놓은 신랑 신부의 표주박잔에도 화합의 의미가 숨어 있다. 즉, 반으로 갈라서 만든 표주박을 다시 하나로 합쳐 원래의 한 몸이 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술잔은 세 번에 걸쳐 교환한다. 이 때도 지독하게 쓴 맛이 나는 소태나무 젓가락으로 안주를 주는 척하면서 신랑의 입술에 문질러 쓴 맛에 놀라게 하는 장난을 잊지 않는다.

신랑을 꿀탕 먹이는 장난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신부의 웃고름에서 당사실을 풀어 두 개의 술잔 중 하나에 넣어 얹어놓고는 어느 것인지 알아맞히게 하여 신랑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러한 장난의 연속으로 혼례시간은 자꾸만 길어지게 마련이다. 요즘 30분 정도로 딱 짜여진 예식장의 횡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통혼례의 장엄함 속에서 연출되는 코믹 드라마가 한결 정겹게 느껴진다면 시대에 뒤진 구세대의 정서일까.

대례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신방을 꾸민다. 이 때 '상직한다', '신방지킨다', '신방엿본다'고 하면서 문 구멍을 뚫고 신방을 엿본다. 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신혼부부의 거동이 궁금해서이고, 둘째는 혹시나 첫 경험으로 요절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얘기다.

신행길에 했던 여러 액막이

신혼부부는 하루나 3일, 길게는 1년 이상 묵다가 신랑 집으로 '신행(新行)'을 한다. 이를 '우귀(于歸)'라고도 한다. 신부 집에서 묵는 날수에 따라 3일이면 '삼일신행(우귀)'이라고 하고, 달을 넘기면 '달묵이', 해를 넘기면 '해묵이'라고 하였다.

신행을 할 때면 신부는 가마, 신랑은 말을 타며, 신부의 상객, 유모와 하인이 따른다. 신부가마 위에는 호피(虎皮)를 얹어 액을 막았고, 신부의 방석 아래에는 목화씨와 숯을 넣어 잡귀를 물리쳤다. 도중에 서낭당을 만나면 준비한 종잇조각을 하나씩 던져 친정에서 멀어지는 여운을 달랬다.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신부가마가 짚불을 넘게 하는 등 신랑 집의 액막이도 잊지 않는다.

현구례 의식과 재행

도착 다음날, 신부가 신랑의 친척에게 인사를 하는 현구례(見舅禮)를 올리는데, 흔히 폐백(幣帛)이라고 한다. 어른들은 절을 받고 예물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대추나 밤을 던져 자식을 많이 낳도록 기원하였다. 다산(多産)이 미덕이던 시대에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었을 것이다. 폐백은 신부가 신랑의 집단에 들어가는 입사식의 의미이다. 요즘 예식장에서 행하는 양가의 폐백은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폐백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아침 문안인사를 올리는데, 대개 3일 정도로 그친다. 그 즈음,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으므로 사당(祠堂)에 모신 조상들에게 인사를 하게 한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앞세워 마을의 친지와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며 며느리 자랑을 한다. 이 때 친척이나 이웃들은 신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예절로 되어 있다.

신행 후 3일 즈음이면 신랑이 처가(妻家)에 인사를 하는 재행(再行)을 한다.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신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웃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신부 집으로 가는 인재행(引再行)을 하기도 하였다. 재행을 하면 처가 마을의 동년배들로부터 '동상례' 혹은 '신랑다루기'를 한다. 동상례는 신랑의 재치를 시험하는 자리이고, 처가 마을의 청장년들과 화합하는 자리로서 신랑이 신부의 집단에 들어가는 입사식의 성격을 가진다.

1년이 지나면 근친(謹親)을 가는 것으로 혼례의 대장정이 끝나고 고달픈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요즘의 예식장 혼례에 대한 우려

20세기 이래로,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혼례에서는 예식장 혼례가 대표적이다. 그 시작은 정동 예배당에서 1920년 4월 15일 치러진 김00과 나00의 예배당 혼례이다.

그런데, 요즘 행하는 예식장 혼례는 예의(禮儀)에 어긋나 걱정이다. 신랑신부의 위치부터 보자. 요즘 교회나 예식장에서 동쪽에 홍색의 초를, 서쪽에 청색의 초를 놓고 신랑의 하객은 서쪽에, 신부의 하객은 동쪽에 선다.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나 적용하는 원리를 예식장에서 적용하고 있으니 큰일 중의 큰일이다.

전통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은 동쪽을 상위(上位)로 보았다. 신랑과 신부는 음양의 화합으로서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설명되어 왔다. 따라서 신랑이 상위이기 때문에 동쪽에, 신부는 하위(下位)이기 때문에 서쪽에 서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신랑은 양이고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청색이고, 신부는 음이고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홍색이다. 초례청의 청홍색실이나 녹의홍상(綠衣紅裳)이라는 신부의 의상 역시 이러한 원리이다.

죽은 사람은 서쪽이 상위이기 때문에 고위(高位)를 서쪽에 비위를 동쪽에 위치시킨다. 향간에 신랑신부의 혼주가 쌍방에게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반대로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근거 없는 낭설이다.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관행이다.

언제부터가 혼인이란 말은 사라지고 ‘결혼(結婚)’이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다. 예절에 관한 책이나 헌법, 민법에서도 ‘결혼’이라는 말은 없다.

결혼이라는 말을 풀어 보면, ‘맺는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결(結)’자에 장가갈 ‘혼(婚)’자를 결합한 말이다.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면 남자가 장가가는데 여자는 걸다리로 따라간다는 우스꽝스러운 의미가 되어 버린다. 여성의 존재가 비하되어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말이다.

“문화는 변화하면서 지속된다”는 진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서구식도 아니고 동양식도 아닌 원리도 의미도 없는 관행이 횡행해서야 되겠는가. 문화로 경제를 살리는 21세기 문화전쟁시대에 말이다. ☸



김시덕 한국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일본 규슈 지역으로 가는 첫 걸음

4월 13일 오전 8시, 전국우수문화원장 해외연수단 22명이 5박6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규슈지역을 답사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후쿠오카 공항을 거쳐 버스로 도착한 나가사키의 첫 인상은 핵폭탄이 투하된 슬픔의 도시가 아니라 노면전차가 유유히 다니는 평화스러운 도시였다. 우리 일행은 나가사키 명물인 짬뽕으로 점심을 하고는 곤장 평화공원을 찾았다. 공원에는 각종 조형물과 평화의 샘이 있었다. 9.7m인 커다란 기념상 조각은 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뜻으로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수평으로 뻗어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게 하였다. 살짝 감은 눈은 왼쪽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고 한다. 자료관 입구에는 부서진 채로 11시 2분을 가리키는 벽시계가 있었다. 1945년 8월 9일 원폭이 투하될 때 민가에 있던 시계로 폭발시간을 알려주는 증거물인 셈이다. 원폭피해는 인구 24만 명이던 나가사키에 15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 했으며 한국인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시관에서는 폐허가 된 대지위에 손에 쥘 유리병이 녹아서 손뼉과 엉겨 붙어 있거나 두개골이 붙어버린 철모 등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오우라 천주당의 슬픈 아름다움과 현립미술관, 구마모토 기타경찰서

인근에 있는 국보로 지정된 26인 순교성당으로 부르는 오우라 천주당을 방문했다. 화려한 제단과 오색 영롱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웠지만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하느님, 다시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평화를 기원하면서 원폭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지만 자료관에서 본 처참한 잔상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다.

구라바정원과 차이나타운 신치를 답사하면서 나가사키의 이국적 청취를 느낄 수 있었다. 신치 입구의 미나토 공원에서 개최 된 제2회 요사코이 축제관람은 뜻밖의 행운이었다. 전통음악에 맞춰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일본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 비를 뿌리던 날씨가 맑게 개였다. 첫 답사지는 일본 최대의 환호취락터인 사가현에 있는 요시노 가리유적이다. ‘야오이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테마를 가진 역사공원에는 많은 유물들이 있었다. 기원전 3세기부터 600년간이나 지속된 야오이시대 유적을 보면 2000년 전 양국의 문화교류가 활발했으며 한반도의 농경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산골 온천 휴양마을인 유후인을 거쳐 온천도시 벳부에서 가마솔 지옥온천을 답사하니 어둑어둑 해졌다. 스키노이 호텔의 노천탕에서 쏟아지는 별빛과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3일째 되는 날이다. 구마모토의 상징인 아소산에서 살아 숨 쉬는 지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91인승 로프웨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자 거대한 분화구 속에서 청자 빛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둘레의 지층은 적갈색 줄무늬로 주변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솟구친다. 활화산이 없는 우리에게겐 신비로운 자연환경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곳곳에는 폭발을 대비한 콘크리트 대피소, 가스분출에 따른 경보기 등

이 있었으며 재해를 대비한 안전대책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었다.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와 약속시간 때문에 서둘러 하산했다.

현청 소재지인 구마모토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현청 건축부 소속 미나카미씨가 아트 폴리스의 현황 설명과 안내를 했다. 아트 폴리스가 리모델링했다는 현립미술관과 구마모토 기타경찰서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다시 태어난 대표적 사례였다. 미술관은 공간을 실용적으로 배치하고 전시실을 최대한 확대하였으며 경찰서 건물은 역삼각형 구도로 반투명유리를 설치하여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건물 이었다. 지역문화 향상을 위하여 20년 전 구마모토현 정부의 중심사업으로 출발한 아트 폴리스는 건축을 통하여 고유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는 성공한 프로젝트였다.

구마모토성은 1607년에 완성했으며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배운 축성기술로 쌓은 성이다. 세이난 전쟁 때 사이고 다카모리 군사들이 55일 동안 공격하였지만 함락 시키지 못한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이름이 높다. 성곽내부를 둘러보고는 시내 중심가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구름 낀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자 호텔로 돌아와 여장을 풀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도공과의 만남

오늘의 첫 방문지는 심수관도요지이다. 1598년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이 대를 이어 만들고 있는 사쓰마 도자기는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이다. 14대 심수관은 “우리가문은 400년 동안 단군 할아버지와 고향을 잊어 본 적이 없으며, 고초를 겪으면서도 성씨를 바꾸지 않았습시다.” 라고 말했다. 12대 심수관부터 세습명을 쓰고 있으며 현재는 16대 심수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14대 심수관은 83세로 일본에서 유명한 문학가인 시바료다로의 저서인 「고향을 어찌 잊으리오」의 주인공이다. 그는 방문 기념으로 구입한 작품 도록에 ‘본시 동근(本是同根)이라는 의미 있는 휘호를 써 주었다. 말로만 듣던 사쓰마도자기의 아름다움에는 400년간 이어온 한국 혼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이 있는 치란 무사마을과 괴물 ‘네시’가 있었다는 이케다호를 둘러서 남국의 분위기에 모래찜질로 이름난 이브스키에 도착했다. 가운을 입고 뜨끈뜨끈한 바닷가 검은 모래사장에 눕자 삼으로 얼굴만 남겨둔 채 모래로 덮였다. 10여 분이 지나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모래를 털고 목욕을 하니 개운하고 상쾌했다. 숙소에 돌아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모래찜질 때문인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

내일이면 귀국하는 날이다. 오전에는 가고시마시에 있는 유신후루사토관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메이지 유신 3결인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를 만났다. 정한론(征韓論)자이며 세이난전쟁을 일으킨 사이고 다카모리는 이 고장 출신으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가고시마에는 8개의 동상이 있다고 한다.

센간엔으로 부르는 이소정원은 뒤쪽의 절경을 배경으로 긴코만과 사쿠라지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주들의 저택과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명승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했다. 정문과 마주한 상고집성관은 1864년에 시작하여 이듬해 완공한 공장 건축물이다. 지금은 일부의 공장 시설물과 남 규슈

를 700여 년간 통치해온 시마즈가의 많은 유물이 전시 되어 있었다.

중앙공민관 방문과 사쿠라지마를 거쳐 다시 한국으로

일본 지역문화원의 역할을 보고자 우리문화원과 비슷한 가고시마 중앙공민관을 방문했다. 3층 건물은 80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등록 유형문화재였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쓴 안내판을 들고 우리 일행을 맞이한 미야시마 관장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각종 연수 및 강연회, 지역문화제와 스포츠대회 등을 관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문화원의 문화학교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선물로 준비한 솟대를 최중수 부회장이 전달한 후 함께 시설을 둘러보았다. 일본의 지역공민관은 시교육위원회 산하로 사회교육단체와 학교가 연대하여 상호 지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페리를 타고 가고시마의 활화산 사쿠라지마에 도착했다. 화산재가 자동차 위에 소복하게 쌓이기도 하고 가끔씩 돌맹이가 튀겨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하교 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사쿠라지마는 원래 섬이었으나 1914년의 대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려 규슈 본섬과 연결 된 곳이다. 아리무라 전 망대를 지나 기리시마 신궁을 거쳐 호텔에 도착한 때는 꽤 늦은 시간이었다. 식당에서 답사기간 동안 각자의 소회를 밝히고 정담을 나누면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울창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귀국하는 날이다. 원시림으로 가득 찬 에비노고원을 답사한 후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 했다. 며칠 간 흐렸던 날씨가 오늘따라 쾌청하다. 4월 18일 12시 30분, 인천행 항공기는 굉음을 울리면서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했다. 머릿속의 상념들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벌써 인천공항이다. 반갑게 맞이해준 권용태 회장님과 동행한 원장님께 작별을 고하고 귀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일본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이번 규슈지역 문화답사는 한일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임영주 마산문화원장

그때 ‘거기’ 를 지금 ‘여기’ 로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다녀와서

문화도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건립과 시민예술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배운다고 한다. 시간과 돈이 있다고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2007년 지역문화경영과정 을 통하여 연수우수생으로 선정되는 행운을 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님들과 함께 일본 가나자와로 연수를 떠났다.

가나자와(金澤)는 인구 45만 명의 작은 도시로 에도(江戸)시대 마에다 한(前田藩)의 중심지로 400년간 번성했으며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근대화에서 소외되며 시골 마을로 퇴락해 가나자와가 가진 재산이라고곤 자연과 조화된 역사적인 길거리, 생활 속에 뿌리박은 전통문화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의 3대 정원이라는 켄로쿠엔에는 70대 노인 관광객만이 찾는 ‘효도 관광지’ 로 전락했었고 켄로쿠엔에 인접한 가나자와성은 오사카성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을 정도였다. 그런 가나자와가 문화도시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21세기 미술관 건립과 시민예술촌의 건립이후부터라고 한다.

가나자와 시청 청사 왼편에 지름이 112미터이면서 외관이 강화유리로 된 원형 미술관으로 유명한 ‘21세기 미술관’ 이 자리하는데, 그 주변의 중앙공원과 더불어 열린 미술공간으로서 전시기능과 미술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예술촌 전경

도심에서 약간 비켜선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다이와마치 1번지 1호)은 옛 방직공장터를 가나자와시가 매입해 문화시설로 개조한 것으로 부지와 시설개조비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전체면적은 10만㎡로 크게 시민예술촌과 가나자와 직인대학교, 잔디광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시민예술촌은 빨간 벽돌의 옛 방직공장 창고건물 외부를 그대로 보존한 뒤 내부를 음악연습장, 공연장 등 기능별로 만들었다. 부지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일자형 건물을 따라 멀티공방(연극·음악연습장 및 작품발표장), 드라마공방(연극 연습 및 실연장), 오픈 스페이스(자유로운 문화창작 공간), 뮤직공방(음악인들의 창작 스튜디오), 아트공방(문화창조 공간), 무대예술광장(연습장 및 공연무대), 다이와마치 광장(잔디광장·운동장), 사토야마의 집(옛 농가 활용 교류공간), 벽돌정(이탈리아 레스토랑) 등이 이어진다.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만드는 문화도시

시민예술촌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기억을 유지시키기 위해 옛 방직공장 창고를 그대로 활용해 문화시설로 개조했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학자,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대답이 문화창작 공간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일본 내 공립문화시설로는 처음으로 '연중무휴·24시간 운영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 한다. 운영은 시민 중심 체제로 각 시설이용자마다 대표적인 '시민 디렉터'를 도입,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시민예술촌 총장은 "화재를 조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두



시민예술촌 내부



과거 시민예술촌이 가나자와 공장터였다는 설명이 담긴 사진

관심 속에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화도시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배운다고 했듯이 그러한 시민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위주의 시대에는 대지가 넓은 공간은 경제적 논리에 맞춰 아파트단지나 또는 현대화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도심 속에 자리하는 공간들이 작지만 소중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도시도 자신 있게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주어진 문화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주민 스스로 활동력을 지니고 움직이는 도시, 그것이 문화도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했던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사업이야말로 그 표본이 된다 하겠다.

가나자와에서 필자의 고향인 대전 중구를 생각해 보았다. 대전 중구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목표로 여러 가지 공연진행과 조례제정, 시설확충(중구문화원 이전 포함)등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도 금년 원도심의 낡은 예식장 건물로의 중구문화원 이전을 앞두고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민예술촌의 시설들을 둘러보고 난 후 시민들의 눈높이를 필자가 먼저 맞춰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거기'를 '지금 여기'로 바꾸는 것이 나의 몫이라는 사명감에 오늘도 중구문화원 책상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최창희 대전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하지만 약속하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요금제도를 적용, 음악실을 6시간 이용하는데 8500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가나자와시는 연간 10억 엔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30만여 명이 이용하며 그 중 10%는 외지인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21세기미술관, 시민예술촌 등은 시민들의 참여와

문화적인 도시가 아닌 문화도시 만들기

-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도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도시로

‘문화적인 도시’는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갖춘 도시라고 한다면,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해 도시가 창조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화도시는 창조도시와도 일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창조도시에 대한 정의를 보면 ‘도시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대도시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체, 쇠퇴하는 곳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에 일본의 가나자와는 문화도시, 창조도시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곳이다.

지난 4월 연합회 김이기 사무총장과 함께 전국의 우수문화원 사무국장 및 2007지역문화경영과정 우수수료자 등 27명은 4박5일간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방문지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공식방문과 시민예술촌, 21세기미술관, 일본 시가현 오오츠시 생애학습센터 및 제제공민관 공식방문 및 견학, 교토-오사카-고베지역의 전통문화, 문화예술, 지역문화기반시설 탐방, 일본문화체험-다도거리, 무사, 공방촌, 세계문화유산(시라카와코)마을 견학 등이다. 그 중 공식적으로 방문했던 가나자와의 문화정책과 시가현의 오오츠시생애학습센터 및 제제공민관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일본 첫날 방문하여 이틀간 머문 가나자와시는 전통과 현대가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인구 45만 명의 호쿠리쿠지방의 최대도시이자 이시카와 현의 현청소재지이다. 이곳은 술·과자·가공식품 등의 특산품이 유명하며 많은 예술가와 수공업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문화관광자원이 아닌 지역의 토착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의 모범사례로 더 유명하며, 기존의 지역 활성화 모델과는 차별화된다. 즉, 문화자원을 경제적 측면의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보다 지역주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려는 노력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가나자와시는 2002년부터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 및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둘째, 시가현의 오오츠시 생애학습센터는 오오츠시의 34개 공민관을 연결하는 중앙네트워크센터로서 1992년에 설립, 산하에 여성회관, 과학관, 교육연수실, 소년센터, 문화예술센터, 시청각연수실, 대강당, 박물관, 미술관을 갖춘 오오츠시의 문화심장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센터설립단계부터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킨 시민주도형 문화시설이라는 점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가나자와 (무사마을)



이시카와 현립 역사박물관

학습그룹이 동아리 형식으로 활용하고, 각 연령층이 서로 연계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바로 옆에 위치한 제제공민관은 시청 출장소가 공민관내에 들어와 있어 주민들에게 민원업무와 공민관이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이러한 추세라는 얘기를 하였다. 일본 공민관이 주민들 속에 가장 친근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우리 문화원의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 두 곳은 이번 연수의 주요방문지로서 우리가 배우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곳으로 사무국장들의 오감과 발걸음은 그만큼 분주할 수밖에 없었다. 27명의 연수단은 5일간 동견동감(同見同感)하면서 머리와 가슴에 많은 것을 담고 돌아왔다. 아마 오랫동안 같은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알찬연수를 위해 연수자료를 준비해 주신 박성복(평택)국장님과 연수보고서 작성을 해주신 박찬용(남원)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참가자 모두에게도 깊은 추억의 마음을 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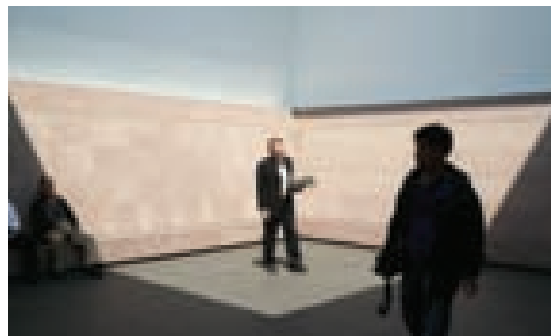
—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연구원



시민예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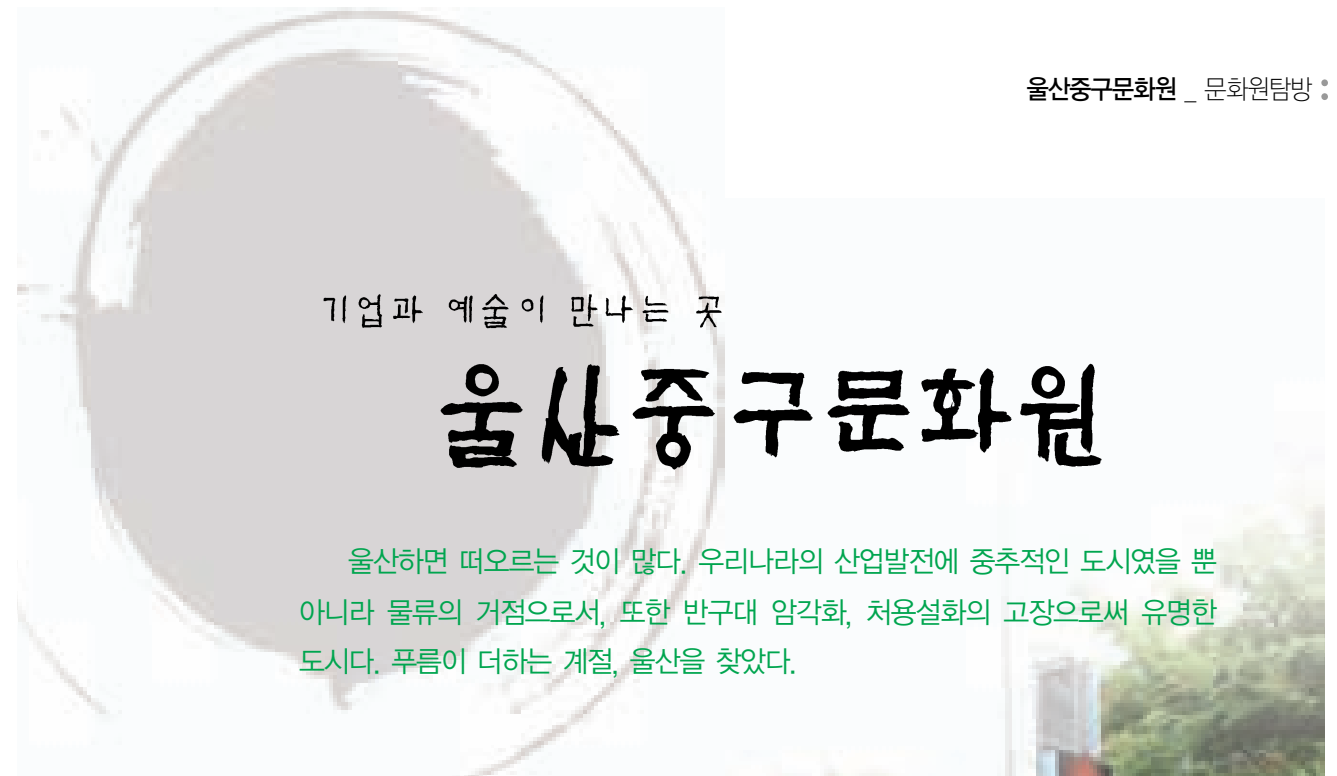
가나자와시청에서 단체사진



21세기 미술관



제제생애학습센터현장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곳

울산중구문화원

울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도시였을 뿐 아니라 물류의 거점으로서, 또한 반구대 암각화, 처용설화의 고장으로써 유명한 도시다. 푸름이 더하는 계절, 울산을 찾았다.



울산중구문화원 식구들. 좌로부터 김성연 국장, 이은혜 간사, 차은주 간사, 김철 원장



울산중구문화원의 김철 원장

바쁨을 기쁨으로 아는 울산중구문화원

울산은 여러모로 서울과 맞닿아 있는 도시다. 급속한 경제발전도 그렇고 지형을 봐도 그렇다. 울산시를 가로 지르는 태화강은 한강과 닮았다. 이런 울산에도 문화원이 곳곳에 있는데 여름의 초입 중구문화원을 찾았다. 어느 문화원이 아니 그러라면은 이 시기부터 문화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 울산중구문화원도 분주한 마음이 가득하다. 평일 오전부터 강의를 받고 행사 준비를 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몸은 바쁠지언정 기분은 좋지요. 특히 울산지역의 문화예술은 문화원이 대체로 많이 책임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 하고 돌아서면 다른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일이 쌓이거든요.”

김성연 국장은 종일 사무국을 뛰어다니면서도 얼굴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다른 사무국 식구들도 마찬가지. 봄 이전에 치러야 할 행사만도 정월대보름 축제부터 문화유적답사, 백일장까지 눈코 뜰 새 없다. 정기적인 문화강좌 이외에도 연말까지 잡힌 행사로 가을음악회, 풍물대회 등 설 틈이 없다.



지난 3월에 열린 문화체험답사



정월대보름



민요교실

울산 메세나 운동 추진으로 문화원 전체의 흐름 소망

울산의 문화원은 중구 뿐 아니라 다른 곳들도 기업과 결연을 맺고 메세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울산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욕구증가,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 등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다.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 발전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문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울산메세나 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매결연 희망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했다. 현재 21개 기업과 24개 문화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은 대기업 위주의 참여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개인과 사회단체로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원의 재정 상황이 늘 골치였는데 이렇게 기업과의 결연으로 한시름 놓았다는 중구문화원이다. 경제적인 상황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메세나 운동으로 기업 간의, 시민 간의 접촉이 잦아져 울산 전체가 더욱 화합되는 기분이라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문화 하나가 좋아서 열심히 달린 문화원 식구들이다. 다른 고장에도 울산의 메세나 운동과 같은 구조적 체계가 이루어져 문화적 질이 향상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슬쩍 내비친다. 바쁜 게 가장 기쁘다고 말하는 이들. 이런 힘찬 움직임에 첫발을 딛고 이제껏 달린 중구문화원이 울산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을 빠른 행보를 기대해본다.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교양 강좌중

기업 메세나 활동을 통한 창조적 문화도시 울산

- 울산중구문화원장에게 듣는 울산의 메세나 이야기 -

창조적 문화도시를 향한 울산 메세나 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제와 문화가 상생을 이룰 때 입니다」 「문화예술지원, 기부가 아니라 최선의 투자입니다」 「기업사랑, 문화사랑」 「기업, 문화예술단체자매결연」 포어를 내걸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과 문화 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문화원을 포함한 24개 문화예술단체가 협약을 맺고 상호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기업에서 문화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방식은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행사 규모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동구문화원-현대중공업(정월대보름행사) / 울주군문화원-삼창기업(문화행사에 지원)]가 있으며, 또한 연간 운영 자금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 [(중구문화원-성전사 : 시설임대지원, 문화행사협찬)]가 있다. 그리고 전통 문화 보급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학술·고증에 따른 지원(중구문화원 부설 병영서낭치기보존회-에스오일)이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단체로 울산광역시 공무원노동조

합과 지역 전문연희단체 놀이패 동해누리과 자매결연을 하여 노동조합 행사의 기획 및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메세나라고 하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사업 지원을 뜻하며, 로마의 예술부흥에 크게 기여했던 메세나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 오늘날 메세나는 주로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4월 18일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 예전부터 메세나라는 형식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울산의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해오고는 있었다.

이것은 울산을 공업도시, 공해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울산시의 행정적 뒷받침과 기업가들의 재정적 동참으로 현재 울산은 공업도시 울산에서 문화생태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문화예술단체들의 노력도 있지만 울산시의 행정적인 노력과 기업가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직·간접적인 후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본다.

공식적인 메세나를 전개하고 이에 동참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되고, 문화예술계는 믿을 수 있는 후원자가 생겨서 상호 win-win 할 수 있어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메세나협약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단순 수치로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원들의 여가 생활을 통한 복지 증진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울산에서는 09년까지 100여 기업으로 확대할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문화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기업과 문화단체의 메세나 자매결연을 통해 울산을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철 _ 울산지회장 / 울산중구문화원장

문사철예(文史哲藝)가 흐르는 서천을 향하여

나이가 몇 살 안 된 사람이 팔자타령을 하면 안 되지만, 여렸을 때는 한학을 조금 공부하였고, 호구(糊口)를 위해서는 컴퓨터과학을 도구로 삼았고, 조금 철이 들어 한문학을 하는 학생이 문화원장이라는 직을 맡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와의 술좌석 좌향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늦지 마라. 술은 적당히 마시고.”

금년 일흔 아홉이신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버스정류장으로 걸어 나가는 내가 딱해 보였는가 보다. 승용차가 없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들 하는데, 시골에 살면서 자동차가 필요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대구대학교 김정일 교수는 이해한다.

나의 집은 서울이고 시골에 노모가 계셔서 KBS1 아침 7시 52분 ‘아름다운 시절’을 어머니와 함께 시청한다. 서울을 오가며 대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중에 문화원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없어서 내가 걸려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모가 해주시는 아침밥을 먹으면 매일 서천(舒川) 읍내에 간다.

엄마 밥 먹으며 시골에 살려고 했던 나의 꿈이 실현되었다. 책을 쓰는 것이 나의 본업이니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집 뒤에 5천 평의 동산에 나무를 심었다. 도시 생활에 찌들었다가 예초기를 메고 풀을 깎고, 꽃 피고 새우는 봄을 맞는 그 맛.

그런데 읍내에 출입하면서부터 생활이 완전히 뒤틀러버렸다. 어렸을 때 한동안 군청 소재지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사귀어 놓은 인사 한 사람이 없다. 사람을 사귄 필요가 있는 직장이기도 하였지만 나의 성격 탓이리라. 사람이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사회학개론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읍내에 나와 보니 “시골 사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봉급을 많이 받는 축에 드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니 나머지는 더 따져서 무엇 하랴. 하기가 요사이는 기능직 10급 모집에 머리를 들이려는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지역이다. 정부청사 뒷문에서 단식한 군수가 서천 군수이다. 나도 일 년에 두어 번 마시던 술을 일주일에 두 번은 마신다.

그러나 어찌랴. 가난하면 가난한 문화가 있을 것이고 부자이면 부자의 문화가 있을 것 아닌가? ‘문화’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어느 외국사전을 번역하여 입력해 놓았다. 또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검색 결과와 같은 내용을 ‘문화’라고 하는데, 동양에서 말하는 ‘문화(文化)’란 우선 글(文)을 읽고 쓸 수(化) 있도록 하여 문학, 사학, 철학을 이해하여 예술에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해(文解)’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골 지역인 우리 군에서 ‘문해(문맹퇴치)’ 사업에 힘을 쏟을 것이다. ‘amenity’가 무슨 뜻인지 알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문(文)학’ 분야로 친다면 우리 지역에는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이 계시고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일가(一家),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신석초(申石艸)의 시비가 한산 모시관 옆에 있고, 최근에 발굴된 진명(震溟) 권현(權攄)이 서천 태생이다. 임벽당 의성김씨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사(史)학’ 분야에서는 국사 속의 서천사와(현재 서천사[舒川史] 강좌가 열리고 있으며 강의 내용을 녹화 중) 향토사를 들 수 있는데(서천의 향토사 연구로 학위를 받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이 있음), 백제 시대와 백제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진포구 대첩이 대표적이다.

‘철(哲)학’ 분야에서는 유불선(儒佛仙) 삼교에 도통한 가정(稼亭) 이곡(李穀)과,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을 들 수 있다.

‘예(藝)술’ 분야에서는 창(唱)의 개척자인 김창룡(金昌龍) 선생과 이동백(李東伯) 선생이 계시다. 현대 미술에는 화가 김인규 선생이 있다.

이와 같이, 백제 때는 변경(邊境)이었고 현재는 충남에서도 귀퉁이에 위치한 서천은 그런대로 다른 지역 못지않은 문화유산이 있고 나름대로 지역 문화 창달에 힘쓰고 있다. ‘서천 지역어 연구’도 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 마을에 30억 원을 소곡주와 모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역사 계승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완성되어야 하는데 순조로울지 걱정이다.

매년 한 번씩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재작년에는 ‘석복 신광수의 문학과 사상’, 작년에는 ‘진포구 대첩’에 대하여 사계의 석학을 모시고 심도 있는 연구 기회를 가졌다. 금년에도 계획 중이다.

4·19 혁명의 첫 희생자인 노희두 열사 추모제는 간소하였다. ‘서천의 금석문집’도 만들어야 하고, 서천 현대 한시(漢詩)를 집대성한 ‘서림시사 한시집’도 출판해야 하고, 진택(震澤) 신광하(申光河)의 문집도 번역해야 한다. 석복 일가의 초서본 서한문도 탈초(脫草) 번역해야 한다. 가을의 ‘기벌포 예술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 ‘서천의 음악’ 사업은 아직 연구자도 구하지 못했다. 이 지역 마지막 선비 심재(心齋) 선생의 시문초고(詩文草稿)는 만만하지 않다. 갈 길 이 바쁘다.

남은 임기 1년 6개월을 채우고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시골 훈장질은 계속할 것이다. 서당(書堂)을 하나 지을까? 금년 대보름에 세운 장승이시여 빠이빠이.

어머니께 전화를 거니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아마도 천둥 번개가 치고 있으므로 전화기 선을 빼놓으신 것 같다. 집에 가야겠다. 아침, 내일 아침 맹자(孟子) 공부 잊지 말아야지. 孟子謂抵擲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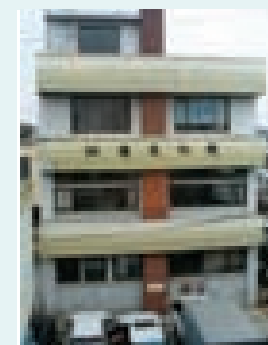
유성열 서천문화원장

강릉문화원의 어제와 오늘



강릉문화원 전경

1992년 5월 강릉문화원으로 첫 출근하던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복잡한 시장거리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던 문화원은 대략 66㎡(30여 평) 정도 되는 강당 하나와 도서자료실 그리고 사무실과 원장실 하나씩을 갖추고 있었다. 좁은 사무실에는 사무국장님과 회계를 보는 여직원 그리고 신입사원인 나까지 세 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강릉문화원에 대한 나의 첫 느낌은 40년 가까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연륜과 무게감이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내 느낌은 목적의식이나 활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무기력함으로 바뀌었다.



구) 문화원 전경

당시로부터 20여 년 전 강릉문화원이 신축되었을 때 이곳은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던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각종 교육과 전시들이 설 새 없이 이루어졌고 각종 모임의 장소로 때론 영화관으로 때론 연극무대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결혼식까지 이루어 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나의 첫 직장이 된 강릉문화원은 더이상 지역의 랜드마크가 아니었다. 많은 영화관이 생겨나면서 영화 상영은 추억속의 일이 되지 오래고, 한때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문화예술회관 신축 덕분에 전시나



전통문화체험 "임영문화를 만나다" -다도체험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육성한 국악관현악단의 공연



도내 행정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분야 아카데미 교육 장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국악교육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공연, 또는 외부 강의 등도 뜸해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전설로나 전해질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원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겠으나 당시 문화원의 상황은 그냥 그렇게 현상유지를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듯싶었다. 당시 문화원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임영향토문화학교 운영과 향토사 연구 및 학술지 발간 그리고 자체 행사 몇 건, 거기에 강릉단오제의 운영 정도였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강릉단오제를 치르는 몇 달을 제외하고는 문화원 일이라는 것이 특별할 것도, 바쁠 일도 없는 속된 말로 '만고땡'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과정의 반영이라고 하지 않던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급이라고 말하기조차 창피한 급여와 지역사회에서 평가절하는 감수해야 할 숙명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런 일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 시키는 모습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궁리하는데 힘썼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문화학교의 활성화였다. 매년 초 수강생을 모집할 때면 모집인원의 절반도 차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부탁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이 수강생을 채우다 보니 열의와 흥미도가 떨어지고 운영 자체도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교양강좌와



2005년 11월 25일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결작 등록 기념식

서예교육에 그치고 있던 과목을 대폭 확충하고 기자들에게 부탁하여 보도기사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그리고 약간의 편법이긴 했지만 가공의 인물들을 만들어 접수인원을 늘린 뒤 접수 마감에 임박했다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었다. 이것은 요즘 호스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진임박 마케팅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준비 덕분이었는지 93년 문화학교는 정원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었고 이어 "서울대 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강릉문화원 임영향토문화학교"라는 제하의 보도기사를 내보내면서 문화학교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 결과 접수 전날 밤이면 한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문화원 앞에서 접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연출되었고 수많은 청탁과 부탁에 애를 먹어야 했다. 이렇듯 문화학교를 활성화 시키자 자연히 문화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문화원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또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학습인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실시와 '민속예술축제 관련사업'의 추진이었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당시만 해도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문화원의 교육 시스템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 매년 지역의 청소년 4~5천명에게 풍물과 민요, 관노가면극 등을 가르치고 지역문화유적을 답사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꾸준히 이어져오다 2005년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시행되면서 확장 개편되었다. 다음으로 민속예술축제관련 사업은 그동안 강릉시에서 주관해오던 민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출연 (성산면 금산리 건금마을 용물달기)

속예술축제(당시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업무를 1999년 이관 받아 직접 시행한 것으로 강릉시 사천면 하평리 답교놀이를 발굴하여 첫 출전인 99년과 2000년 강원도대회에서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1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종합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리고 이듬해 하평답교놀이보존회를 설립하고 2003년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소중한 민속을 보존 육성하는데 역할을 다했다.

다음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2004년 ‘유네스코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된 강릉단오제를 정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강릉단오제는 강릉문화원에서 1976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 주관운영단체로서 행사를 치러왔는데 처음 문화원에 입사할 당시 문화원에는 단오장에 대한 실측도면 하나 없이 축제가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축제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상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여기에 지역 건달조직이 개입하여 그 누구도 감히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우선적으로 상가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이 축제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경찰도 손을 쓰지 못하던 건달조직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지역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검찰과 직접 연계하여 행사장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단오장을 정확히 실측하여 행사장을 재배치하고 투명한 상가분양으로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족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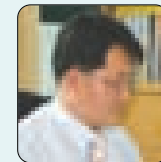
협에 직면하였으며 지역 내에서조차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떳떳하고 정직하다면 그만이라는 신념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하나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이 단오제는 어느덧 축제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가 유네스코 무형유산결작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5년 그동안 강릉문화원에서 주관하던 단오제의 운영을 분리시켜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서 단오제만을 전담해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주변에서는 강릉문화원에서 단오제를 떼어내면 문화원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것으로 그동안 키워왔던 강릉단오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최상의 길이기엔 주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심각하게 반대하는 이사진들과 원장님을 수도 없이 설득하여 결국 강릉단오제의 운영을 문화원에서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대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강릉단오제의 분리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와 땀으로 늘려나간 문화원의 살림을 내 손으로 약화시키는데 대한 부담감과 향후 문화원의 방향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단오제위원회를 독립시키면서 함께 일했던 많은 직원들을 팔려 보내고 남아있는 빈 책상들을 보면서 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나섰다. 내 스스로 줄인 살림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라도 또한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강릉문화원은 강릉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도 국악예술강사지원사업 운영단체, 강원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단체, 강릉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미취학아동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민속예술축제사업, 지역문화조사연구 및 보존사업,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교사직무연수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예술행사 개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사업을 통해 연간 30여 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역문화발전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아름다운 추억여행, 찾아가는 문화행사

제가 갑작스럽게 2005년 6월에 김포문화원에 입사해서 업무 파악도 채 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문화대학, 사군자 서예교실, 사물놀이,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1년마다 사업비를 받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 신경은 다 쓰고 있지만 제가 기획부터 섭외며 모든 신경을 총 동원해서 하는 사업 하나가 '찾아가는 문화행사' 인데 읍·면·동을 찾아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문화원 주관으로 다양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멋지게 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의 마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나름의 멋진 계획을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멋진 공연과 행사를 해도 이것이 파묻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지역방송국의 협조를 받아 전파를 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 참여가 좋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뒤따르니 관객 동원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주민 참여가 적으니 관객 동원이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공연의 질이 좋아 좋은 행사를 만들어 놓고도 알리지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관객이 되도록 기획했습니다.

문화원에 주어진 예산은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그 모자라는 예산으로 멋있고 알차게 공연을 성황리에 끝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 지역 예술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경기민요를 보급하시는 원장님과 회원님들이 우리소리를 알리고 민요 문화를 지역 어르신들께 알리는데 막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페라도 올려 보기도 하고 빨리 댄스, 고전무용, 아마추어 가수 등 지역마다 특색 있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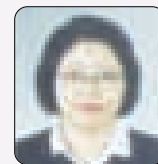
둘째, 지역 자치센터에서 동아리 회원님들 협조를 받았습니다. 차이밍, 자이브, 차차차 등 스포츠댄스를 배워서 무대를 마련하여 드렸더니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가요부문. 우리 김포는 연예인들이 제법 삽니다. 그래서 지역 봉사차원에서 저렴한 공연료를 받으시면서 좋은 공연을 위해서 도와주시곤 하는 터라 이 또한 김포문화원의 큰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10회째 공연으로 아직 시작은 안 되었지만 전년도보다 더 알차게 기획하여 멋진 행사로 남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은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행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행사입니까. 안마당에서 공연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외면하지 말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서 멋진 행사로, 아니 마음 속의 고운 추억으로 남길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옥 김포문화원 과장

사천이야기

사천의 풍부한 농수산물과 단감

바다와 대륙과 하늘이 잇닿은 곳이 사천이다.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으며, 고속도로가 지나가니 사천은 하늘이 낳은 교통의 요충지라 할만하다.

사천에서는 풍부한 농수산물이 난다. 야산에서 자란 사천 단감은 국내에서 제일가는 단맛을 간직하고 있다. 어산물은 이보다 더한 것이 많다. 사천 앞바다 죽방렴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그 값이 비싼 편이면서도 없어서 못살 지경이다. 사천에서 말린 쥐치포는 호사가들의 입맛을 북돋운다. 사천산 전어는 그 기름진 맛이 남해안에서도 평판이 자자하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난 2003년 11월 말, 대전 지방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 몰려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싱싱한 사천만 바닷고기의 회 맛을 이 곳 사람들은 오히려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간 '외진 곳' 이었던 사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은 오랜 동안,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외진 곳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직하면 '진주라 천리 길' 이라 했겠는가. 사천은 진주보다 더 남쪽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으니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정치와 경제권에서 떠나면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했던 지난 시기는 너무나 암담한 세월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그 엄혹한 세월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천백 년 동안 계속되었다.

중앙에서 결정된 행정사항이 사천에 도착하기 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려야 했고, 사천지역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조정엔 건의되기까지는 또 다시 한 달여가 소요됐으니 그것이 공동사회를 이루고 사는 세상에서 할 것이었겠는가. 치안이 부재 상태였을 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일이다. 왜구들의 노략질은 반 방치상태에 있었고, 게다가 관리들의 가렴주구는 너무나 엄혹해서 평민들의 고달픈 생활 습속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달라질 기미가 없이 천여 년 세월을 그대로 이어왔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고려 말 사천지방에 주석하고 있던 달궁이라는 스님이 지역민 4천여 명을 모아 놓고 국태민안을 비는 매향의식을 했겠는가. 향을 땅에 묻으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비쳐지기를 염원하는 의식이 매향의식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해야 했으니 이 지역 주민의 처참한 삶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눈에 선한 것이다.

조선시대라고 해서 달라진 것도 없었다. 조선 조정은 백성들로부터 세미를 거둬가기만 했을 뿐 지역민에게 베푸는 것이라고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사·농·공·상으로 구성된 조선사회에서 해안 지방인 사천에서 상류계급인 사류가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대로 세 물림한 아전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의 주구에 불과했다.

사천 지역의 뿌리 깊은 역사

사천지역에는 지리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지방에서 거둔 세미를 모아두는 조창들이 있었다. 이는 멀리 신라시대부터 시행된 해운을 이용하기 위한 물류기지였다. 이 조창을 중심으로 장마당이 섰고 모여든 사람들은 서민 생활에 윤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기서 유행한 것이 광대놀이 가산오광대였다. 광대놀이는 천민들이 양반계급을 빗대어 삶의 허무를 그려낸 마당극인데, 양반 자신들도 이 광대극을 보고 웃으며 즐겼다.

역사상 사천지역에 유일하게 정부의 구휼기관이 들어선 것이 영조시대의 제민창이었다. 1762년 영·호남 지방에 흉년이 들자 좌의정 홍봉한이 주창하여 충청도 비인과 전라도 순천, 그리고 경상도 사천에 제민창을 설치해 2만석의 양곡을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거둬갔다. 나중에 환곡으로 빚어진 농민반란이 일어나자 왜군을 불러들여 조·일 연합 진압군을 조직한 조정은 지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여기서 죽은 농민군 위령탑이 사천과 이웃한 하동군 옥중면 어느 산정에 세워져 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일어난 조선조정은 망해 나갈 때까지 변화의 바람을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다. 위정척사란 명분을 내세워 외세를 배척하다가 종내는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해방이 되어 나라를 세우기는 했으나 동족상잔의 피 비린내 나는 전쟁도 겪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천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서양문물에 자리를 빼앗긴 우리의 것들

이른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은 이미 서양문물에 잠식당하고 말았다. 전기로 밥을 해먹고, 기름으로 난방을 하며, 양장 차림으로 길나들이를 한다. 커피를 마시고, 멀리 있는 벗들과 전화를 한다.

인륜대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결혼식인데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결혼풍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우후죽순처럼 도심가운데 들어선 결혼식장에서는 국적불명의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결혼식장은 축의금 전달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식을 10여분 만에 얼렁 똑딱 해 치우고 만다. 하객들의 표정 어느 구석에도 백년가약을 맺는 신혼부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장례식도 다를 것이 없다. 마지막 가는 사람에 대한 예를 치르기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너무나 허술하고 경박하다. 장례식장에서 경건한 분위기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죽음에 대한 애도의 마음도 없다. 조상에 대한 흠모의 정도, 부모를 향한 효심도 죽음 자체로서 끝나고 만다. 이틀 밤을 새우고 나면 주검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당으로 운송되고 만다.

전래의 결혼식은 지역축제 마당에서나 간혹 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장례식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주검을 저세상으로 나르던 상여 행렬은 민속축제에 출품된다.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유지되거나 재현되고 있는 것이 전통혼례식이고 전통장례식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생각은 하염없고 걱정은 끝이 없으나 대책 또한 세우기 어려우니 한심할 따름이다.

바이블을 쓴 유대민족은 세계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종교를 넷이나 창시하였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공상주의가 그것이다. 우리는 왜 다른 민족이 만든 종교를 끌어다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잠식시키고 말았을까. 머리가 모자라기 때문인가. 생활환경이 부족해서 인가.

전통과 창조 사이를 넘나드는 문화, 옛것을 소중히 하는 마음의 중요성

일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해외에다 내 건 침략명분이 조선족은 자조할 줄 모르고, 단결하지 못하며 게으르다는 것이었다. 힘센 민족이 밀어붙이니 그런 줄만 알았다. 셋만 모여도 의견이 각각이니 단결심이 약하였다. 결집할 건덕지가 없으니 노름으로, 술추렴으로 세월을 허송한 것이 지난시기였다.

그런데 한 번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는 일인들의 주장이 헛된 모함이었음을 증명하였다. 한번 마음을 가다듬은 지 30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단결 잘하고, 가장 부지런하며 자립 자족할 수 있는 국민임을 세계만방에 확인시켰다. 우리의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명석한 민족임을 증명하였다.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반만년 세월을 용케 이어 온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화는 전통과 창조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옛 것을 도외시하거나 잊어버리면 문화의 접변동화로 이어지고 만다.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문화다. 옛 것만 답습해서는 오늘에 사는 자신의 존재자체가 사라지고 만다. 문화는 끊임없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해양문화와 내륙문화가 어우러진 곳이 사천이다. 바닷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거칠고 외향적이라면 내향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내지인의 소양이다. 이들이 한데 아울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천 지역 문화다.

사천에도 선사문화가 존재한다. 패총이 있고, 고인돌이 있다. 이들을 고이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사천에도 선비문화가 존재한다. 서원이 있고, 향교가 있고,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있다.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엄연한 사천의 문화적 자산이다. 지난 인물을 현창하고, 지난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오늘 의 문화인이 해야 할 일이다.

바야흐로 사천 지역은 경제적으로 도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천을 대표할 만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이다. 하늘을 나는 산업이 사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다를 가르는 해양산업도 만만치 않다. 사천 문화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우선해서 이뤄져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사천 시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사천문화원이 그 중심자리에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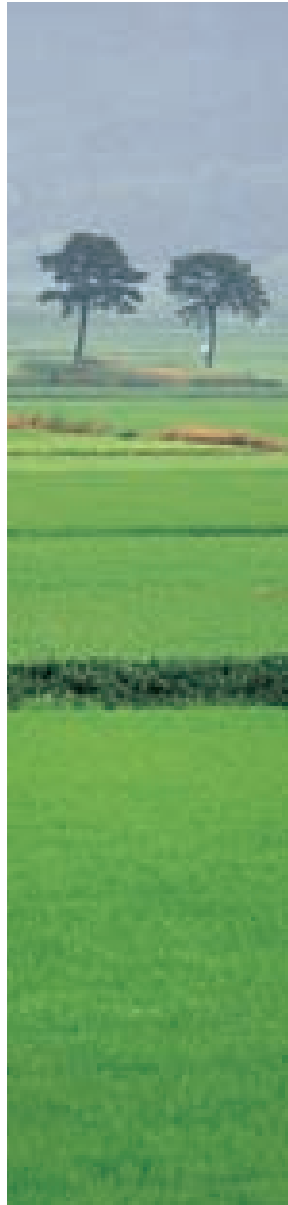


박동선 사천문화원장

하동사람 정공채

인사동 뒷골목 국밥집에서
 성촌(星村)정공채시인의 너털웃음이
 곤때 저린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미8군의 짚차⁽¹⁾를 타고
 광화문을 가로질러
 꺾 꺾 꺾
 단숨에 용산 이태원을 질주 하다가는
 휘영청 수양버들 한강 둔치에
 퍼질고 앉아
 고인 눈물속에 술한 별들이 반짝거리는
 소주잔을 들이킨다.
 조선 사람들의 짓밟히어 찢긴 가슴을
 명주올이 아닌
 꺼칠한 삼베 보자기에
 애뜻하게 감싸는
 그의 노래
 언제나 고향 그리는
 한(恨)의 노래
 어이 어어이---
 지리산 깊은 계곡 하동사람
 정공채
 내 눈물속에 언제든지 아른거리는
 오만한 시(詩)의 황제
 고향 하늘기슭 한 모서리에 걸려
 천고(天孤)를 껴안더니
 이제는 하동 갈마산 섬호정 언덕⁽²⁾에 앉아
 붉게 아린 눈을 부빈다.

- 2008년4월30일 작고하신 시인 성촌 정공채선생의 영전에 드림-



주1) 1963년 12월호 현대문학에 발표된 1500행의 장시로 원제목은 “美 八軍의 車”이며 일본의 유명 문학지 “신일본문학” “신작가”등 국제적 저명 문학지 등에 번역 수록 된 일본제국주의와 미군정, 그리고 독재에 저항한 고인의 대표시.

주2) 고향 하동군민들의 정성으로 세운 정공채 시인의 시비가 있는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정순영 시인



간장, 천년을 아우르는 맛



장독대에다 화덕을 피워 놓고 장을 달인다. '보리방아 물 부어 놓으니 시어머니 생각 난다' 했던가. 시어머니 건강하실 적엔 곁에서 바가지나 들고 단작대다 말던 일을 혼자서 하려니 손도 발도 허둥거린다. 장 담근 지 60일이 넘어가니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날마다 걱정으로 장을 달이시는 중이다.

이르신 대로 첫 술의 장은 불을 죽이고 오래 뜸을 들인다. 거품을 걷어 낸 술 속의 햇장을 거기에 붓는다. 전이 남실거릴 때까지 붓는다. 이렇게 가득 채워 놓아도 시나브로 닳는 게 간장이란다. 이 독의 장은 어머니 회갑 되던 해에 담근 것이니 20년이 다된 것이다. 흑갈색 묵은 간장이 발그레한 새 간장을 받아들이며 아우르는 빛깔이 세월 저쪽의 농도를 기웃거린다. 시어머니는 국을 끓일 때는 햇간장을 썼지만, 나물을 무칠 때는 늘 이 덧간장을 썼기에 나 또한 그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덧간장은 발효균을 대물림하여 집 비우신 시어머니 대신 우리 가족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이다.

세상의 음식에는 나름대로 맛이 있다. 그 맛을 결정하는 것은 양념이며 양념 중에 으뜸이 바로 간이다. 조리의 기초란 다름 아닌 짠맛이다. 간을 무엇으로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맛은 감칠맛인데 이 감칠맛을 선사하는 일등공신이 바로 조선간장이다. 그래서였을까. 언젠가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성 선 씨 종가의 장독에서 나온 간장 한 병이 오백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나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 간장은 '대한민국 명품 로하스 식품전'을 통해 처음 일반에 소개되었는데 매년 200 가량 새로 만들어져 보충된다고 한다. 그 집안 21대 종부인 '김정옥' 씨에 따르면 이 간장이 세상에 알려진 뒤 맛을 보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음식 전문가나 미식가가 많지만 워낙 양이 적어 그 후로는 퍼주거나 팔 수 없었다고 한다.

명품이라 불리는 이런 귀물 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고 여길 정도로 장맛 관리에 정성을 기울였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장독대를 별이 잘 드는 마당 복판에 만든 집이 많았고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게 담을 치고 문까지 걸어 통제해 왔다. 장 담그기 사흘 전부터 여인들은 외출을 삼가고 부정이 타지 않도록 언행과 몸가짐을 특별히 조심했다. 당일에는 목욕 재개를 하고 메주 한 덩이와 소금, 고추 등을 소반에 차려 먼저 고사를 지낸 후 장을 담았다. 엄한 경우에는 음기가 발산된다 하여 여인네의 입을 창호지로 봉하기도 했다. 또한 담근 후에도 3일이 지날 때까지는 훤한 곳 출입을 금했으며 해산한 여인이나 잡인들은 장독대 출입을 엄금했다.

이런 장을 우리가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문헌상 가장 오랜 된 것이 683년 신라 문무왕 3년에 폐백 품목 가운데 장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으며 고구려도 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조선왕조 들어서는 메주를 공물로 받아 매년 궁에서 장을 담았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 기록들에 의하면 이 메주는 절메주라 하여 자하문 밖의 백성이 봄철에 풀이 날 때 검정콩으로 썬 바쳤는데 일반 메주보다 서너 배는 크게 만들어졌다. 절메주는 벗짚을 깔고 띄우는 여염집 메주와는 달리 새 풀을 베어다가 사이사이에 깔고 풀이 뜨면서 생기는 뜨거운 열로 짧은 시일에 띄웠다. 이렇게 들

어은 메주를 장고마마라고 불리는 장 담그기 전담 상궁의 검열을 받고 그 지휘 아래 장을 담았는데 어떤 향 아리는 사람 키보다도 더 컸다고 한다. 잡인들과 잡층들의 근접을 막으려는 뜻이 남긴 것이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 친정어머니는 새로 담근 장항아리에다 창호지로 버선을 오려 거꾸로 붙여 놓곤 했었다. 그것은 벌레나 해충들에게 보내는 경고장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엔 너희들이 장항아리 가까이 오면 가차 없이 밟혀 죽고 말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장 풍습은 왕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선조가 정유재란을 당해 함경도로 피난해 있을 때였다. '합장사' (장을 담그는 일을 관장하는 사람)로 신 씨 성을 가진 사람을 선임했는데 조정 대신들의 만류가 있었다. 장을 담글 때 금하는 날짜로 신일(申日)의 신(申)과 신(辛)의 성은 시어짐을 의미하므로 자칫 장을 버리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한동안 신(申)과 신(辛) 씨의 성을 가진 집안에서는 사돈이나 친척 집에서 장을 담가 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장에 다양한 풍습이 생겨난 까닭은 아마도 그 속 미생물에 의해 맛이 결정 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미생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집집마다 장맛이 다를 수밖에. 미생물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니 만큼 장에 대한 금기와 속설 또한 많았던 것이다.

간장은 오래 묵힐수록 맛을 좌우하는 성분인 유기산(有機酸), 유리환원당(遊離還元糖) 및 유리(遊離) 아미노산(酸)의 함량(含量)이 증가(增加)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각종 신약이 창궐하는 요즘에도 묵은 조선간장을 먹고 지병을 고쳤다는 사람들이 적잖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전문가는 오래된 간장을 골동장(骨董醬)의 예술적 가치라고도 평한다. 그것이 예술적 이념에 입각한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창작자의 간장에 대한 구상과 자연재료의 선택, 그리고 자연작용을 활용한 연출이 결합하여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창작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술품이라는 것이다.

다시 앉힌 장이 끓는다. 장 달이는 냄새가 진동한다. '아직도 간장을 달여 먹다니' 옆집 청년이 장독대 아래 담장 밑을 지나가며 불멘소리로 웅얼거린다. 나도 그랬다. 그때는 그 짜고 역겨운 장 달이는 냄새란 참기 어려운 역겨움이었다. 그러나 이젠 안다. 장 달이는 일은 사는 일과 같더라는 것을. 깊은 단맛이란 쓰디쓴 짠맛을 달이고 달였을 때야 비로소 한 방울 맛있게 된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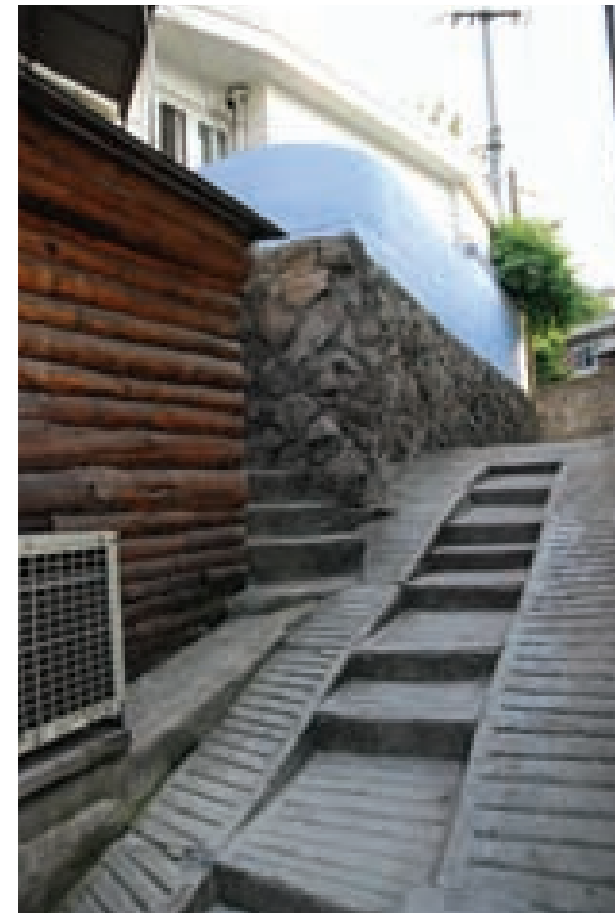
간장독을 들여다본다. 검고 진한 향기가 천근의 무게로 서려 있다. 그렇다. 간장을 담근다는 것은 쉽사리 변하지 않을 향을 빚고 민족의 지조를 담그는 일이 아니라. ☯



박영덕 수필가

특집 : 변화하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가 변하고 있다. 동네의 겉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많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동네 곳곳의 이야기를 둘러보았다. 사라지는 우리 동네에 관한 시선을 담은 **꽃향기 가득한 살고 싶은 우리 동네 (한봉호)**와 옛스러움과 문화가 공존하는 동네 부암동을 살펴본 **그 동네, 하루를 바라보다 - 새삼스레 둘러보는 부암동 여행기 (최성덕)**, **동네 의원과 카페의 조우 '제너럴 닥터' (편집부)** 이야기와 **경남의령문화원의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마련해보았다. 그리움과 현재가 뒤섞인 우리 동네 문화가 찾아왔다.



꽃향기 가득한 살고싶은 우리동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는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조건에 놓여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은 기계화와 인공구조물화 되어 있어 자연스러움은 찾아보기 어렵다.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주차장, 도로, 자동차 등에 에워 쌓여있고 그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조차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기보다는 인공환경에 매몰되어있는 기계화된 인간으로만 존재한다. 경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가장, 아이들 성적에 만 집착하는 엄마, 교육은 없고 성적만 존재하는 학생, 모두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기계화된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한 우리 동네

우리는 언제나 자연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은 포유류에 해당하는 동물 중의 한 종이다. 지구상에서 한 종의 생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일 것이고 기본이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하며,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우리 삶의 터는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우리 삶의 터가 변화되는 것은 도시화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 진행의 사회적 배경은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 이전에 우리의 삶의 터는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형식으로 배산임수형의 자연취락구조를 이루고 살았다. 동네 앞에는 실개울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논과 밭에 둘러 쌓여 있었다. 동네 안에는 돌담 골목길과 마당, 정자나무와 마을 쉼터가 있었다. 쉼터에는 큰 느티나무 정자목 아래에서 어른들이 쉬며 이집 이야기, 저집 이야기를 하고 함께 걱정하고 있고 아이들이 오손도손 모여 있다.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몸으로 만나고 정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멘트로 만든 양식 주택이 등장하고, 도로가 포장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경제발전이 모두의 관심이었고 경제발전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이상이었다. 이시기에 우리 동네 전통 주택은 불편하고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경제발전이 이룩되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도시 속의 우리 동네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집이 부족하여 산림 급경사지에 달동네가 만들어지고 밀집된 주택, 직선화된 골목길이 만들어지고 우리주변은 콘크리트로 모두 포장되었다.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환경은 변하였어도 사람들은 아직 이웃을 형성하고 살았다. 이 시대 삶의 모습은 아직 도시 일부지역에 남아있고 도시재개발의 위협에 놓여있다. 인천 송현근린공원 정상의 달동네 박물관에 이 시대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다. 주택구조, 골목길, 화장실, 동네 중심인 가게, 그 가게에는 딱지, 라면땅, 쫄면 등 어린 시절 추억을 안고 전시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도시 내 우리 동네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조성되어 실내에 삶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외부공간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웃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규모가 너무 커져 동네 개념이 사라지고 단지 개념이 등장했다. 외부공간은 건물에 둘러싸인 어린이 놀이터와 주차장만이 존재하고 주변에는 자동차만 보인다. 2000년대는 도시재개발, 뉴타운 건설 등으로 20층 이상 되는 초고층화와 계단식 건물로 이웃은 사라지고 앞집, 위집, 아랫집만 존재한다. 외부공간은 차량홍수로 지하와 지상에 모두 자동차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은 고립되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인공화된 구조물과 자동차에 자리를 내 주었다.

시 대	사회적 변화	동네 공간 및 삶 구조 변화
1960년대 이전	배산임수의 자연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과 산림 사이의 전이지대에 경작지내부에 위치 ■ 전통 가옥구조 ■ 마당, 돌담, 골목길, 정자목 및 마을휴식공간
1960 ~ 1970년대 중반	새마을 운동과 주택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로 만든 양식 주택과 정원 ■ 벽돌담으로 형성된 골목길 ■ 도로구조 변화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경제 발전과 도시인구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급경사지 달동네 ■ 밀집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직선화된 골목길
1990년대	아파트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화된 아파트 조성 ■ 실내 중심의 새로운 주거문화 형성 ■ 대규모화로 동네 개념 상실 ■ 대규모 중정형 외부공간 ■ 자동차 문화로 인한 골목길 상실
2000년대	도시재개발, 뉴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층화의 계단식 건물 ■ 부동산 경제로 인한 재산 증식 수단 ■ 차량 증가로 인한 대규모 주차장, 지하주차장

시대별 사회변화와 우리 동네 공간 및 삶의 변화

동네와 함께 사라진 여러 가지 것들

사라진 우리 동네는 그 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외부공간구조는 우리 동네에는 돌담, 골목길, 마당, 화단, 마을 쉼터가 있었으나 사라진 동네에는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잔디밭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는 대부분 자동차가 주인이 되어버렸다.

우리 동네와 그 주변의 주인이었던 자연은 실개울, 논과 밭, 느티나무 정자목, 새와 개구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아름다운 꽃이었으나 지금은 그 자연을 대신하여 조경수목과 잔디가 있으며, 그 위를 집비둘기와 까치만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들리는 소리는 자동차 엔진소리만 들린다.

우리 동네 뒷편은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되어주었던 산이 서있었으나 지금은 산은 보이지 않고 회색의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보이는 것은 도로 뿐이다.

우리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웃이고 친구이었으며, 인정으로 살아가고, 즐거운 인사소리와 아이들 놀이소리, 울음소리가 함께 하였고 때가 되거나 절기가 돌아오면 지역의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유치원차량과 그 주변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주부들, 마주보는 앞집, 위·아래 집 쿵쿵대는 소리, 학원차량과 아이들, 주차문제로 싸우는 사람, 우리 집값 등만 남아있다.

과거 우리 동네 이사 오는 집은 이웃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떡을 돌려먹었다. 그 떡은 기존에 살고 있던 이웃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인정 있게 함께 잘 살아 보자는 부탁이었고 이웃들은 그 그릇에 먹는 음식을 담아 보내며 이사를 인정하였다. 현대는 이사 오는 집도, 기존의 집도 관심이 없다. 떡을 돌리니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사 온 집은 이웃이 무섭다.

사라진 우리 동네에는 정감 있는 자연과 그 안의 모습, 인정 있는 삶은 없어지고 이해관계, 집값, 자동차, 아이들 학원성적만이 그 자리를 지킨다.

항 목	사라진 것들	변화된 것들
공간구조 및 물리적 구조	돌담, 골목길, 마당, 정원, 마을쉼터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잔디밭
자연생태	실개천, 논과 밭, 느티나무 정자목, 새와 개구리, 자연의 소리, 아름다운 꽃	조경수, 잔디, 집비둘기, 까치, 자동차 소리
경관	뒷산경관	회색의 아파트, 도로경관
삶과 문화	이웃과 친구, 인정, 즐거운 인사, 아이들 놀이, 아이들 울음소리, 지역의 풍습	유치원 차량과 주부, 마주보는 앞집, 위아래집 소리, 학원차량과 아이들, 주차문제, 우리집 집값

우리 동네변화에 따라 변화된 것들

환경이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우리 동네를 위해

우리 동네는 아파트로 변화되어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우리 동네는 없고 단지만 남았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동네가 그리고 아쉬운 것 같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 최근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데 최우선으로 하는 것들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자연과 문화가 있는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조성, 도시재개발 등 현재의 고밀화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건전한 삶과 문화가 있는 우리 동네가 되기는 어렵다.

도시가 재개발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의 재정착률은 약 17% 정도로 대부분의 기존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 창출과 자연요소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역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 내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 또는 도시개발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해답은 기존의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것이 그 첫째이다. 실개천이 흐르고, 골목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동네 어귀에는 느티나무 정자나무에서 어른들이 휴식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동네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 내 자연요소를 최대한 찾아내고,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자연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내 자연요소는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복개된 실개천을 찾아내고 큰 나무를 중심으로 소공원을 조성하고, 옥상에는 화분에 꽃을 심고 골목 담장에는 화분을 걸어 울긋불긋 꽃향기가 가득하고 새소리 즐거운 동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연이 살아나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인정 있고 친근하게 변할 것이다. 아침에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자. ☺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교수

그 동네, 오늘을 바라보다

- 부암동 여행기

새로움과 예스러움이 교차하는 동네

차가운 빌딩 숲과 갈 길 바쁜 사람들로 늘 붐비는 도시 서울에도 외곽은 존재한다. 그 중 청와대의 북쪽에 위치한 부암동은 웬만한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택시기사들도 잘 모르는 곳이다. 오래된 이발소와 방앗간, 새로 문을 연 카페와 갤러리들이 공존하는 동네, 부암동은 낡은 앨범의 흑백사진들과 컬러사진이 공존하는, 그런 동네다.



부암동 곳곳에는 대형마트가 아닌 작은 가게 풍경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옛 방식 그대로, 동양방앗간

부암동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는다. 그물처럼 촘촘한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도 부암동을 건져내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역이 3호선 경복궁역이니 부암동으로 가려면 시내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

아마 다른 방법도 있을 테지만 시내버스를 타면 부암동사무소 정류소에서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류소가 있는 자하문 고개 정상 삼거리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각각의 목적지는 다르더라도 이곳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삼거리에서 방향을 안내해주는 이정표는 마치 어느 한적한 지방도로에 있는 이정표처럼 낯설다. 광화문 방면에서 시내버스를 탔다면 환기미술관이라고 크게 적혀 있는 이정표를 따라 삼거리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정해보자. 길을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난 골목으로 동양방앗간이 보인다. 붉은 벽돌을 쌓아올린 건물 외벽에 흰색 페인트로 그려놓은 간판처럼 옛 방식을 고집하는 이 방앗간은 부암동 이쁜이 할매로 불리는 차옥순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다. 식품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고 만든 찹쌀떡, 인절미, 쫄떡, 감자떡 등은 알음알음 인기가 높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 오후 늦게 찾아가면 떡은 구경도 못하고 방앗간 내부나 힐끔힐끔 구경하고 돌아가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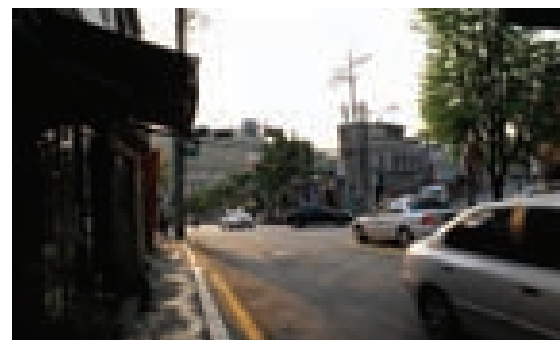
갈라지는 길의 동양방앗간

이곳에서 나와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한적한 주택가 한쪽에 환기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한 획을 그은 김환기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부인인 김향안 씨가 세운 이 미술관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수향산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기획전시, 문화행사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북악산을 뒤에 두고 잘 꾸며진 정원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이곳이 서울일까, 백사실

환기미술관에서 백사실로 가다보면 나오는 이곳은 사실 집이 아니라 '산모퉁이' 라는 갤러리 카페다. 1층과 2층은 카페로 운영되는데 2층의 전망이 좋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일 뿐 아니라 산자락을 타고 느리게 흐르는 서울성곽의 능선을 눈으로 쫓는 것도 큰 재미다. 지하는 갤러리로 꾸며져 있는데 손때 묻은 소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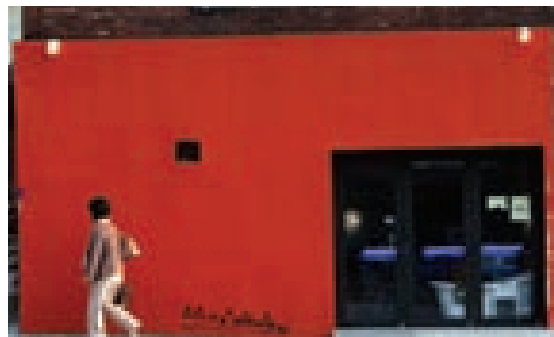
잠시 쉬었다면 이제 백사실로 가보자. 산모퉁이에서 나와 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억자로 꺾이는 길이 나오는데 이곳이 백사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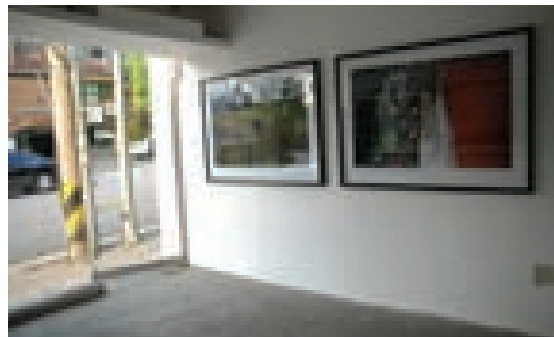
세검정 고개의 삼거리. 한적한 길이지만 서두르는 차를 보기가 쉽지않다. 차마저도 이 동네를 지날 때는 한템포 쉰다



주택가 사이의 환기 미술관.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들린다



갤러리 카페.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주황의 벽이 시선을 잡아끈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 부담없이 들어가기 좋은 갤러리.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열린 문틈사이로 차소리가 운치있다



길에서 흔하게 보는 장독대, 향이리뚜껑을 열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다



주택가에서 백사실 계곡으로 들어서면 울창한 나무 때문에 이상한 나라에 막 당도한 기분도 든다

들어가는 입구다. 그렇지만 입구가 작은 셋길이기도 하거니와 큰 주택의 옆으로 난 길이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기억자로 꺾이는 길의 모서리에서 바닥에 나무를 깔아 이어 만든 길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자. 그 길을 따라 죽 올라가면 백사실이다.

서울에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잘 믿기지 않는다. 질계 우거진 숲에는 야생화들이 곳곳에 피어있고 그 사이로 계곡물이 졸졸졸 흘러간다. 숲 어디쯤에서 새소리도 들려오고 도롱뇽과 올챙이가 아직도 살고 있다고 표지판이 알려주는 이곳 백사실. 부암동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처인 백사실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곳은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백사 이항복의 별장터가 있었다고 해 백사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와서 도시락을 나눠먹으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보자. 굳이 교외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나들이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공연과 이탈리아 요리의 조화

백사실에서 자하문 고개 정상 삼거리로 내려 오다 보면 단아한 기와집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아트 포 라이프(Art For Life)다. 오보이스트 성필 관 씨가 예술과 레스토랑을 결합해 조성한 이색적인 문화공간이다. 매주 토요일 재즈와 클래식을 위주로 한 기획공연이 개최되며 특별 공연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니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www.artforlife.co.kr) 메뉴는 퓨전 이탈리아 요리가 제공되는데 집 안에서 공연과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만족감은 기대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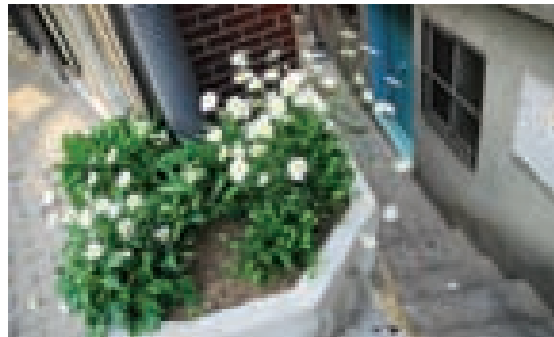
다시 자하문 고개 정상 삼거리로 내려오면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대성이용원과 주황집, 노란집으로 불리는 작은 카페들이 있다. 이곳에서 부암동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기억에 남는 일들을 반추해보면 어떨까. 주황집 옆에는 간판도 지키는 사람도 없이 <갤러리,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유리문에 적혀 있는 무인 갤러리가 하나 있는데 누구나 부담 없이 감상하고 나오면 된다. 설명해주는 큐레이터도 길을 막는 사람도 없이 편안하고 투명한 게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동네 부암동의 마칩표 같은 곳이다. ☺



최성덕 여행칼럼니스트



아트포라이프의 공연리허설 현장. 작은 길을 따라 들어선 공연장에는 한 연주자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길모퉁이에 흙을 퍼와 이름모를 꽃을 심었을 동네주민의 마음 씩씩이가 고맙다



오랜 시간 이곳에 서있는 대성이용원. 평일 낮인데도 제법 사람이 북적댄다

동네의원과 카페의 조우

- '제너럴 닥터'에 가다

병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막상 가자면 여러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 중 제법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의사의 '불친절함'이다. 이럴 때는 어릴 때 길에서 마주치면 꼭 껌을 손에 들려주었던 동네 의사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배가 아파서 갔는데 괜히 간지럼을 태우거나 동네 개구쟁이 험담도 같이 해주었던 그 의사 할아버지 말이다.



제너럴닥터 내부 전경

그 병원에서 나는 천연덕스러운 커피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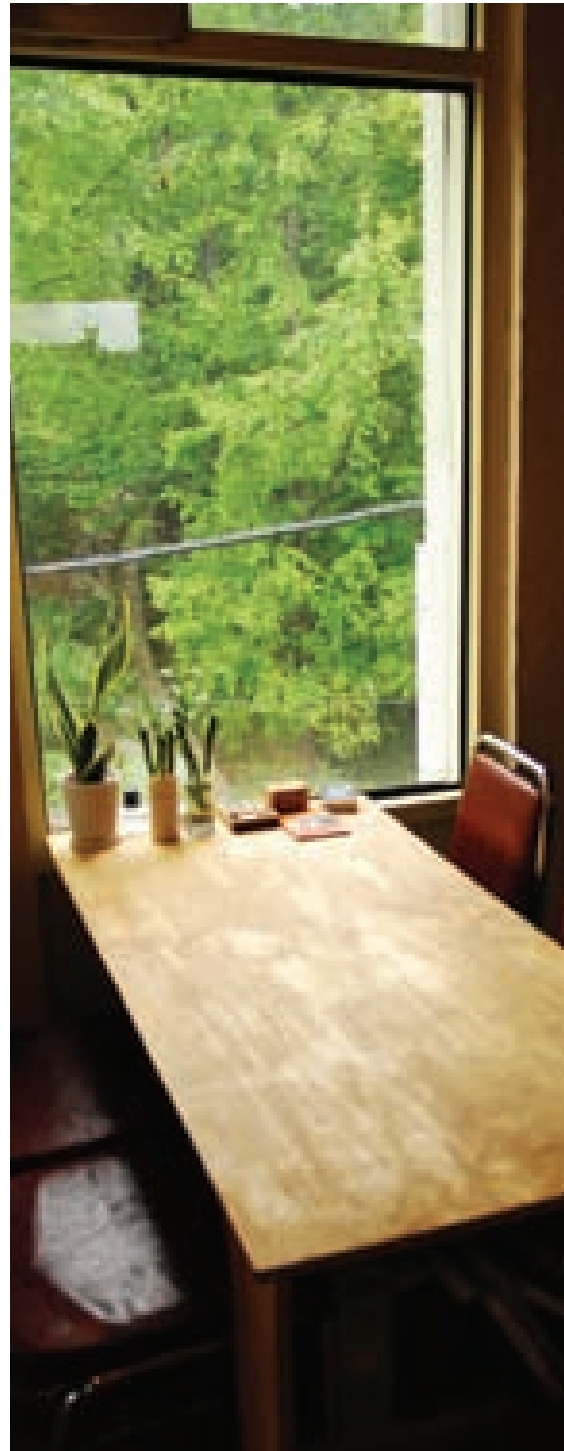
정말 작은 간판이다. 제너럴 닥터. 그리고 아래는 핸드드립, 에스프레소라는 단어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새겨져 있다. 계단을 밟아 올라간 2층 진료실은 정말이지 이(異)세계다.

아무리 둘러봐도 홍대의 여느 카페와 다를 것이 없는 풍경이다. 아기자기한 소품하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까지... 병원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비슷비슷할 것이다. 으레 기억되는 풍경은 진한 소독약 냄새와 흰 가운의 의사다. 이곳은 그게 없다. 무슨 일일까. 이곳이 병원인 것 같지 않다.

“물론 병원 맞습니다. 다른 병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차 진료를 보는 동네 병원이죠. 내과, 소아과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간단한 이비인후과 장비도 있습니다.”

쾌활하게 운을 떼는 제너럴 닥터의 원장 김승범 씨다. 졸업 후 경기도 양주에서 3년간의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뒤 개원한 이곳은 그의 의대생 시절부터 흐릿하나마 윤곽을 그려오던 공간이다.

“어릴 때 병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의 이곳에 와있다, 하는 뭐 그런 극적인 이야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대생이라면 다들 한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이곳에서 있네요. 어느 날 가만히 신촌길을 걷고 있는데 카페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공간에 병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말이죠. 불현듯 두 장소를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구체화되어 지금의 제너럴닥터가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푸르다.

환자와 의사, 그 5분간의 소통

보통 병원에 가서 소화가 안 된다, 감기 기운이다 하면 으레 간단한 약 처방을 받고 주의 사항 정도를 듣고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걸리는 진료 시간은 5분 남짓. 그나마 5분이면 길게 진료 본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의사가 하루 평균 보는 환자의 수는 100명 안팎이다. 더욱이 특정 시간에 몰리는 환자를 진료하려면 시간까지 생각하면 여유 부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짧은 시간의 진료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환자와 4시간 동안 진료를 한 적도 있지만 긴 진료가 능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환자와 의사와의 소통, 그런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볼 때 환자의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환자도 의사의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구요.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차이입니다. 그 간극을 좁혀 가는 게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일이에요.”

보통 제너럴 닥터에 관해 이색병원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고 한다. 공간으로만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김승범 씨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는다. 당장 엉뚱하게 벌인 이색적인 이벤트적인 일이 아니라 요즘 의료계의 경향이라고. 최근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들, 그리고 해외의 구조적인 여러 움직임에 자신도 한 발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이다.



진료받는 환자에게 세세히 설명 중인 정혜진 선생.

케이크 굽고, 커피 뽑아주는 잔소리 의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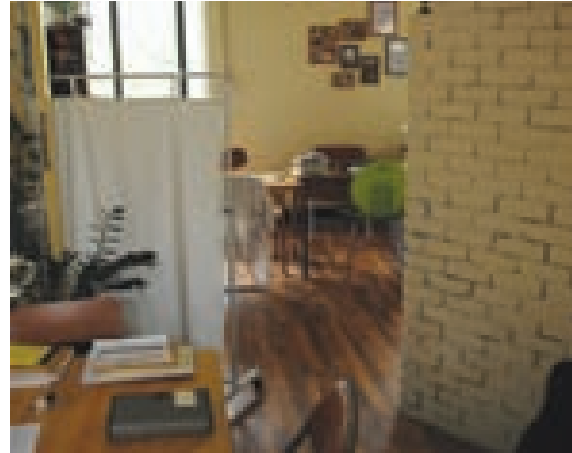
2007년 개원한 제너럴 닥터는 현재 두 명의 의사가 진료를 보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곳에 올해 합류한 정혜진 씨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다가 왔다. 많은 고민 끝에 이곳을 택하게 되었는데 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이곳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진료를 보는 저도 굉장히 만족해하며 진료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구요. 진료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 만족도가 높아지면 좋겠어요. 사람을 병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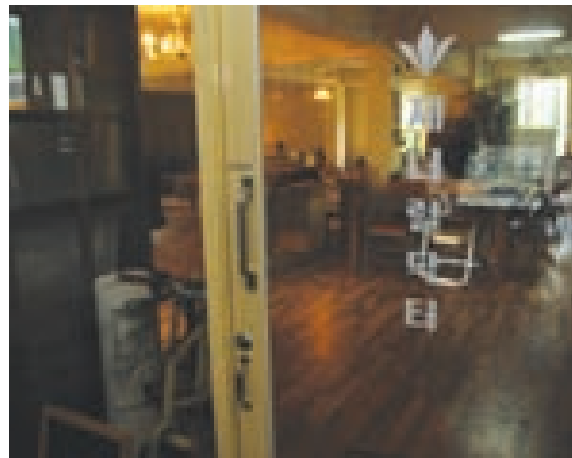
아침부터 케이크를 구워내는 정혜진 씨의 손길에는 분주함이 가득하다. 진료 뿐 아니라 음식 솜씨도 제법이다. 이에 못지 않은 솜씨로, 김승범 씨는 이 공간을 준비하며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고.



제너럴 닥터의 현관. 작은 간판이 길을 안내한다.



하얀 돌담에 쌓인 진료실을 살짝 엿보았다.



2층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제너럴 닥터 현관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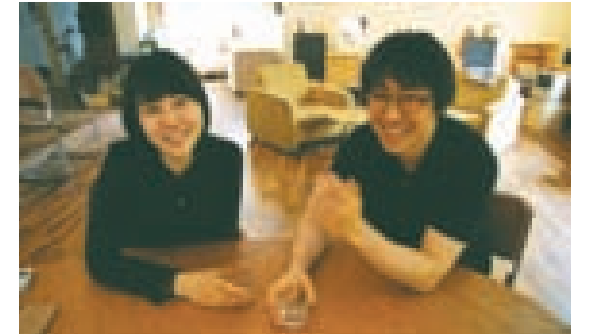


병원 같지 않은 나무 침대가 더욱 편안해 보인다.

“진료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카페에서 많이 끌어오려고 애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진료도 보고 직접 커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계형 바리스타인 셈이에요.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정혜진 선생님도 요즘에는 케이크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인데 맛이 제법 좋아요.”

케이크를 굽고, 커피를 뽑고, 환자가 오면 이것저것 캐묻는 의사. 그런 잔소리(?)가 오히려 어색해 이게 뭔가 싶은 환자도 많다. 그래도 어릴 적 동네의원의 의사 할아버지가 귀 따갑게 잔소리 하던 기억이 겹쳐져 한번 진료를 보면 다른 병원에는 못 가게 된다고.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나누었던 그 대화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계속된다.

이들의 바람대로 진료 받는 사람, 진료하는 사람 모두 만족하는 일은 어찌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노력으로 그런 상상이 온전치는 않아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



제너럴 닥터를 꾸리고 있는 두 사람. 좌 정혜진 선생, 우 김승범 선생



두 의사의 합작품. 주문을 받자 똑딱하고 한 상 차린다.



주문을 받자 직접 커피를 내리는 김승범 선생

동네에 문화가 찾아오다

경남의령문화원의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의령의 5월. 부는 바람에 누렇게 익은 보리가
이리저리 몸을 누이며 들판을 물들인다.
보릿고개 넘어 막 농번기가 시작되는 완연한 봄.
충절의 고장 의령을 찾았다.



경남 의령문화원의 강홍석 원장.

문화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경남의 의령문화원이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맡게 된 건 2006년이었다. 문화원 일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었던 것. 마을의 역사적 장소를 재정비하고 알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재고할 여지가 없었다는 게 강홍석 원장의 설명이다.

“처음 5개 문화원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10개 문화원 대상으로 시작될 때 저희도 합류했죠. 아무래도 농촌 투자 계획은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실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사업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고, 형태가 없었으므로 완전



좌부터 성수현 국장, 강홍석 원장, 차은영 간사, 정종찬 사업과장



이곳에서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떼어 난방을 하게 되어 있다. 아궁이에는 가마솥이 걸려있다.



새로 증축된 담장이 마을 분위기를 더욱 살려준다.

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흰 캔버스 위로 새롭게 밑그림을 그려가고 색을 입혀 형태를 이루어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일단 가시화되고 나니 조금 힘을 얻게 되었다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진척이 있으니 주민들의 반응도 많이 좋아졌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뭘 하는 건가, 경계하기도 했는데 작업이 진척되니 시선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당 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저희가 한다며 고맙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도 감사할 따름이죠. 문화원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니까요.”

초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모임을 갖고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무리 문화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라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을의 풍경에 눈이 가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을 담장 꾸미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을을 꾸미는 일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담장 손보기다. 대체로 시멘트로 만들어진 담장은 동네를 바라볼 때 삭막한 느낌이 들기 십상이었다. 통일감 없이 붉은 색, 회색 등 여러 색으로 들쭉날쭉하던 것을 재정비하였다.



복원된 고산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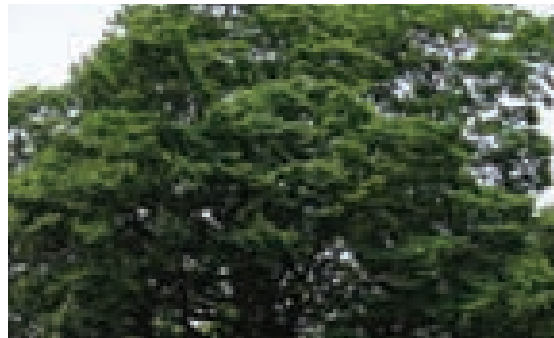
동네를 살리자 역사를 살리자

“마을의 핵심거점시설인 전통문화학교로 유도하기 위한 단체숙박, 단체 체험객 유치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만들었습니다. 전통·농촌·생태·체험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 일환으로 2006년 입산마을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고 그 해 6월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입산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청소년의 교육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입산마을의 원래 한자 지명은 설산(雪山), 그래서 설피 마을이라고 불리웠고, 사람들끼리는 쉬운 토박이말로 설미라고 불렀던 동네로 탐진(耽津) 안씨의 집성촌



고산재 앞마당의 민들레가 운치 있다.



고산재를 오르는 길목에 놓인 나무가 시원해보인다.



의령은 지금 곳곳에 보리가 한창이다.

이다. 고산재는 의령지역의 향교만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세운 의령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오래 운영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산재는 여러 번에 걸쳐 중수하면서 오랫동안 서숙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유서 깊은 곳이었다. 이곳을 가꾸는 것이 의령의 숙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령만의 독특한 공간을 복원하고 재정비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임하게 되었구요. 우리의 동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가꾸는 일이 문화원의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지역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도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운동장에서는 야외 공연을 하고 교실 곳곳을 숙소로 쓰면서 의령의 문화 발상지가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전 것 뿐 아니라 우리 현재의 것을 살피는 일도 게으를 수 없다는 강홍석 원장. 고산재도 완공을 마쳤고 폐교 리모델링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그동안 이들의 땀방울이 값진 것은 다시 말해 무엇 할까. 이들이 심은 노력만큼 이곳들이 의령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본다. ☘



의령 고산재 본채 (복원 전)



폐교 리모델링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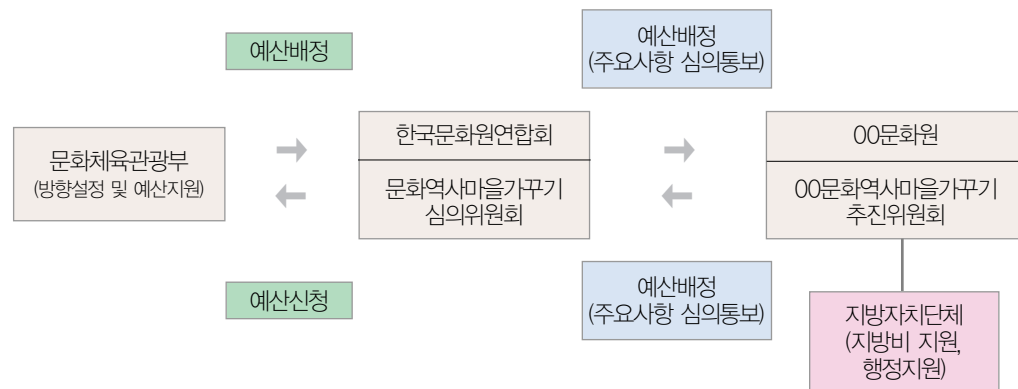


돌담에 장미가 눈에 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은 1개 마을 당3년의 사업기간을 갖는다. 240억원(기금 155억원, 지방비 85억원)의 예산으로 1개도 30억원(기금 20억원, 지방비 10억원)을 지원한다. (※ 경북 안동·경기 안성 15억원 지원)

□ 추진체계



□ 역할구분

구 분	구 성	관 장 업 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지역문화과	사업추진방향 설정 예산 확보 및 지원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행정 및 지방비 부담금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9인이내)	문화역사마을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관련 일체사항 심의, 전문위원 추천 사업공모 및 선정, 평가, 지정해제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시달 기금신청 및 재교부 기타 본사업의 제반사항 추진
지방문화원 (문화역사마을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9인이내)	문화역사마을추진위원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집행 및 정산 기타 본사업의 제반사항 추진

□ 사업지역 개요

도	지역	사업개요	문화역사마을테마	주요내용
경북	안동시 외룡면 오천1,2리 군자마을	· 사업기간 : '04.12~'07.09 · 소요예산 : 15억원 · 관광기금 : 10억원 · 지방비 : 5억원	600년 전통의 사대부촌의 정취가 보존된 한옥 고택마을 자원을 외국인, 청소년, 가족 등의 전 통생활문화체험장으로 활용	· 역사자료 조사 및 보존 · 고택체험을 위한 고택 정비 및 개방 · 마을 공간조성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마을	· 사업기간 : '05.03~'08.11 · 소요예산 : 30억원 · 관광기금 : 20억원	세계적 인류문화유산인 참녀(해녀)의 생활문화 와 마을 자원을 활용, 문화관광마을 조성	· 전통건축물 리노베이션 · 어촌문화체험 및 마을축제 · 참녀음식문화재현등
전남	영광군 삼호리 효동마을	· 사업기간 : '05.03~'08.11 · 소요예산 : 30억원 · 관광기금 : 20억원	남도의 전형적 농촌마을 특징을 '살아있는 박 물관(eco museum)'으로 활용한 체험학습장 조성	· 농촌마을 보전과 복원 · 공동체문화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사업
강원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 사업기간 : '05.12~'08.12 · 소요예산 : 15억원 · 관광기금 : 10억원	마을에서 보존 전승되는 매지농악(강원도무형 문화재)과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	· 토속 민속자료 상설전시 · 회촌 세시풍속행사사업 · 전통문화체험 사업
	강릉시 구정면 회산리	· 사업기간 : '05.12~'08.12 · 소요예산 : 15억원 · 관광기금 : 10억원	신라시대 향가에서 유래된 오독떼기 노동요와 마을의 역사자원을 활용 역사문화체험마을 조 성	· 오독떼기전승 사업 · 애항프로그램 사업 · 오독떼기체험 사업
충남	서천군 동산리 동자북마을	· 사업기간 : '05.12~'08.12 · 소요예산 : 30억원 · 관광기금 : 20억원	국내 대표적 가양주(소곡주) 마을의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 주민의 소득증대 및 체험마을 조 성	· 소곡주 복원·학습·계승 · 마을 공동체문화 활성화 · 소곡주체험 사업
경남	통영시 두억리 문어포마을	· 사업기간 : '05.12~'08.12 · 소요예산 : 10억원 · 관광기금 : 7억원	문어포마을은 한산대첩의 역사적 현장이고 어 촌마을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활용	· 문어포 별신굿 재현 · 통구미선 복원 · 한산대첩 기념·정비사업
	의령군 입산리 입산마을	· 사업기간 : '06.06~'09.06 · 소요예산 : 20억원 · 관광기금 : 13억원	의병유적 등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청소년 등 교육체험장으로 조성	· 백산 안희제의 창남 학교 복원 · 문화마을 정비
전북	정읍시 무성리 원촌마을	· 사업기간 : '06.06~'09.06 · 소요예산 : 10억원 · 관광기금 : 7억원	유교 및 선비문화유적을 활용 역사문화체험마 술로 조성	· 문화재·민속자료 조사 · 체험프로그램 사업 · 마을축제 사업
	고창군 월산리 사등마을	· 사업기간 : '06.06~'09.06 · 소요예산 : 20억원 · 관광기금 : 13억원	고대 전통소금 생산지인 마을의 염정지의 복원 과 체험 제조 등 체험마을 조성	· 염정지 복원, 소금연계 상품 개발 · 소금테마프로그램 사업
충북	충주시 목계리 목계마을	· 사업기간 : '07.03~'09.12 · 소요예산 : 15억원 · 관광기금 : 10억원	조선시대 최대 내륙포구이며 장시중의 하나였 던 목계를 복원하여 중원문화의 중심마을로 조 성	· 근대건축유산 활용사업 · 주막과 소금집 복원 · 문화교육 및 목계별신제
	진천군 연곡리 보련마을	· 사업기간 : '07.03~'09.12 · 소요예산 : 15억원 · 관광기금 : 10억원	'생거진천'의 자연친화형 생활문화환경과 화 랑, 배달정신 등 교육체험장으로 조성	· 생거역사테마문화마을조성 · 화랑·배달정신 등 역사교육 문화마을 조성
경기	안성시 덕봉리 덕봉마을	· 사업기간 : '07.06~'09.12 · 소요예산 : 15억원 · 관광기금 : 5억원	3.1운동의 충효예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문화역 사마을 조성	· 3.1운동의 충효예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전통마을 정비 및 복원

박성우 문화 역사 마을 가꾸기 담당자

전라도 아리랑의 가락 속으로

이른 아침 대파밭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머니의 아리랑 가락

아리랑 가락은 산줄기를 타고 강원도와 진도의 맥을 잇는 듯 하다. 바꿔 말하자면 남도의 봄꽃 소식이 산 등성을 따라 강원도 설악산 까지 올라오듯이... 강원도 아리랑 가락이 산맥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도 까지 연결된 듯 하다. 진도 아리랑과 정선아리랑에서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감정은 공통으로 느낀다. 예컨대 질박한 진도 아리랑과 애절한 정선아리랑은 풍부한 향토미학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금년은 '광주, 전남 방문의 해'로 남도 문화의 갖가지 풍부한 행사가 많다. 한국의 깊은 멋과 맛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새벽녘 진도 땅에 안개 낀 파 밭. 멀리서 들릴까 말까하는 "아리아리 라아양~서리서리 라양 아라리가아~나왔네에헤...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아 났~네에"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일찍 대파밭에 나온 밭 농사 아주머니의 구수한 목소리다. 그 소리는 우리들 어머니의 소리요, 또는 누님 목소리와 같은 삶의 절규다. 내가 기쁜 마음이면 그 노랫가락이 흥겨롭게 들리고, 좀 언짢은 마음이면 아리랑 소리가 웬지 구슬프게 느껴진다.

필자가 느끼는 전라남도 진도는 맛깔스런 음식맛과 소리맛이 잘 섞어진 완벽한 명품 같다. 그 명품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나 시서화(詩書畫)의 전통이 풍부한 예향이다. 예부터 문인을 비롯해 화가와 소리꾼이 많은 것도 다 풍토적 환경이 아닌가 한다. 그 중 진도아리랑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전라도의 대표적 노래이다. 처음에는 그냥 '아리랑 타령'으로 구전 되어오던 것이 '진도아리랑'으로 이름을 고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은 도내의 초중고에서부터 아리랑이 많이 불려지는 것이 바로 '진도아리랑'이다.

그러면 아리랑 그림을 따라 전통 깊은 전라도의 가락 속으로 떠나본다. 우선 전라북도의 전주로부터 변산반도와 나주를 지나 목포, 해남, 진도로 그림 작품 여행은 시작된다.



전주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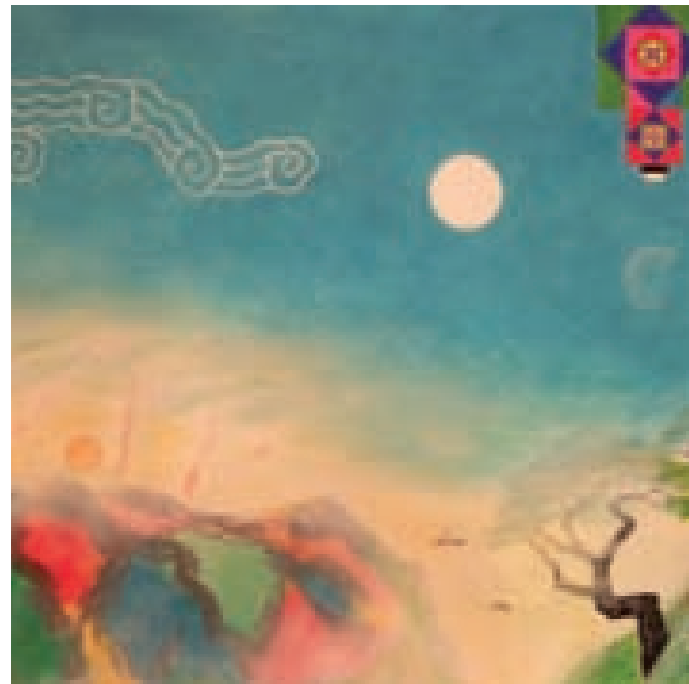
전북 전주는 전라도의 관문처럼 전통 깊은 한옥마을이 좋은 인상으로 맞아 준다. 단정하고 맵시 있는 한옥마을이 아름다운 품위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 덕진공원의 연꽃도 수려하다. 우아한 멋과 깨끗한 전주는 양반집을 들여다 보는듯하다. 전주에도 아리랑을 애창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대사습놀이를 통해 신인발굴과 국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고장은 한지 생산 및 한지문화축제, 전통부채 등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고매한 인품을 엿보게 한다. 필자의 '전주아리랑' (2000년작) 그림에서도 전주 고유의 상징적 분위기를 그려내려 노력했다. 전주와 함께 김제 진안 익산 정읍 남원도 전주문화권에 속한다. 이제는 서울 곳곳에도 전주식 콩나물 국밥이나 비빔밥이 인기를 끄는 것은, 전통을 잘 살려 낸 음식문화다. 콩나물의 영양학적 가치는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졌을 만큼 선조들의 지혜가 빛나는 문화이다.



전주아리랑

변산아리랑

다음 부안군에 있는 변산반도는 사람의 심신을 맑고 즐겁게 해 주는 명소다. '변산아리랑' (1999년작) 작품에서처럼 해가 누엣누엣 지는 서산의 풍경은 이곳의 장관이다. 붉그스레한 주황색 태양이 수평선에 가라앉을 때 "서산에 지는~해에는 지고 시퍼어 지나요오 날 두~고오 떠나는 니므은 가고 싶어 가나요오~"의 가사 그대로 실감 나게 떠오른다. 이곳 변산 국립공원은 내소사를 비롯해 적벽강 채석장 직소폭포와 해수욕장이 이름값을 하는 고장이다. 정신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변산... 해안 도로를 따라 보이는 주변 풍광은 아름다운 고장을 확인 시켜준다. 이곳 줄포와 고부는 또 묘하게도 기억할 사연을 갖고 있는 고을이다. 1894년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은 백성들에게 온갖 재물을 수탈해온 '인간쓰레기' 같은 탐관오리였고, 그로 인해 민란이 일어났던 곳이다. 지금도 명심하자는 역사 교과서처럼 쓰인다.



변산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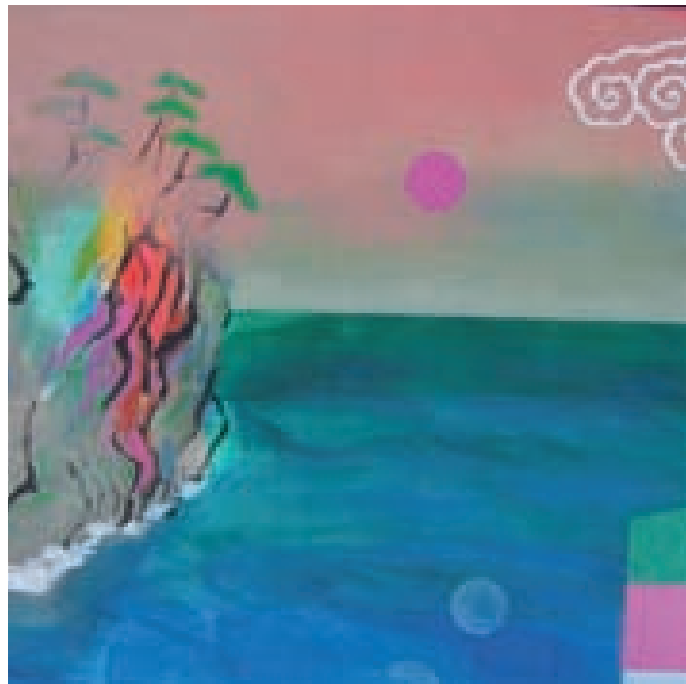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는 물 좋은 배를 생산해 낸다. 배 농사 하면서 부르는 아리랑은 더 큰 과일을 영글게 한다. 나주 배는 전국 시장의 20%를 점유할 정도로 맛이 좋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배꽃이 피는 4월은 광주-금천면과 부덕동-세지면은 온통 꽃길로 장관을 이룬다. 필자의 그림 '나주아리랑' (1996년작) 에서도 배꽃과 현대적 나주를 묘사한 것이다. 광주와 인접한 나주는 인적 문화적 교류가 많고, '나주곰탕' 은 고기가 많고 깔끔한 국물이 전국적 상표로 입맛을 사로잡은 상태다. 토하것도 유명하며, 삼색유산놀이도 전통문화의 뿌리요, 조선시대 대학자인 신숙주를 배출한 문화배경을 갖고있다.



나주아리랑

해남아리랑

해남의 땅끝 마을은 옛날 김정호가 지도를 그리기 위해 다녀갔을 것으로 생각되니 더욱 새롭다. 물이 맑고 곡식이 잘 되니까 오래전부터 인심이 좋고 풍요로운 고장이다. 필자의 회화작품에서도 땅끝 이미지를 살려, 아리랑과의 관계를 그렸다.(2001년작) 땅끝 위에 소나무는 현실보다도 약간 회화적으로 묘사 표현했다. 이곳의 바닷물 빛깔은 아름답고 묘한 감정을 드러내 준다. 해남은 두륜산 도립공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대흥사라는 큰 절이 있고, 이 절에 과거의 초의선사가 차문화를 연구 발전시켰던 역사가 있다. 지금도 차문화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물 맛 때문인지 '해남 아가씨' 라는 가요도 있을 정도로 예쁜 아가씨들이 많은 곳이다. 이곳 출신의 화가 윤두서와 시인 윤선도가 당대의 이름을 떨친 훌륭한 바탕위에 오늘날도 그 인문학적 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인접한 보성 순천 고흥도 아름답다.



해남아리랑



목포아리랑

목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해서 걸출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해낸 토양을 지니고 있다. 허건 김환기 박화성 차범석 이난영 등 미술 문학 노래 등 각 분야별 예술의 세계를 구축해낸 분들이 많다. 목포는 누가 뭐래도 시대의 가수 이난영을 빼 수가 없다. 17세의 나이로 '목포의 눈물' 을 부르면서 1930년대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이 노래를 통해 일제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키웠다 해도 지나침은 아닐 것이다. 노래 작곡자는 당시 18세인 손목인이었다. 현재 난영가요제는 목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국민가요 뿌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필자의 '목포아리랑' (2007년작) 그림에서도 '목포는 항구이며 노래다' 로 상징시키고 싶었다. 목포는 항구도시로서 유달산 삼학도 갯바위 문화거리 평화의 광장처럼 볼거리가 많은 것도 뿌리 깊은 항구의 문화도시 맛을 보여준다.



목포아리랑

진도아리랑

진도는 말 그대로 보배 섬이다. 육지와 떨어져 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진도는 활기차 보인다. 진도 아리랑은 애초에 '아리랑타령' 이었다. 진도아리랑의 특색을 박병훈(1996, 진도문화원, 아리랑타령)에 따르면 <1>옛날에는 그냥 아리랑이라고 했다가 1990년초 지명을 붙여 '진도아리랑' 이라 했다. <2>창법은 판소리 등 남도민요와 같으나 격렬하게 떠는 목, 꺾는 목등이 독특해서 타지방 아리랑과 구별된다. <3>가사는 주로 사랑하는 '님'에 대한 노래나 밭에서 일하거나 풀 캐는 여인과 서로 화답하는 가사가 많다. 상황에 따라 창작자가 즉흥적으로 맞춰 부르는 해학, 익살, 슬픔도 사랑으로 승화 시켜왔다. <4>가락은 중모리 장단이며 후렴 중의 '응 응 응' 하는 사설은 타 아리랑에서 볼 수없는 묘한 특색이다. 이 지역의 표현음량과 정서를 적절히 비벼내듯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진도아리랑 노랫말 중 두 마디를 본다. "한국 최남단 보배섬 진도 인심이 좋아서 살기가 좋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알그닥 짚그닥 짜는베는 언제나 다



진도아리랑



짜가고 친정애를 갈거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처럼 이곳의 삶을 바로 그려낸다. 이하같은(신나라판, 박공녀 이연자노래)

진도의 넓은 파밭은 푸른 초원을 연상케 한다. 물빛과 소리와 섬은 잘 어울리는 그림이다. 필자가 진도를 오가면서 진도를 테마로 한 아리랑 회화 작품은 20여점이 된다. 진도는 숨 쉬며 바라보는 곳 마다 그림이 되는 분위기다. 그만큼 물 밭 소나무 시골길 사람 먼 바다 등이 음악을 길러낸다. 남동에 있는 남도석성으로 가보면 야트막한 석성이 있다. 그 성 앞에는 소나무가 해안을 따라 서있다. 몽고병이나, 왜적이 침입할 때 일차적 방어수단으로 심은 것이 아닌가 보인다. 당시에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거기다 외적의 침입자까지 막아야하는 삼중고를 겪으셨던 조상의 고난과 근면과 슬기를 본다. 진도는 노래 한 가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땅 전체가 역사와 문화와 인정이 배어 있는 멋진 곳이다. ☘



김정 서양화가



전주아리랑

은은한 등의 속살을 밝히는 사람들

- 전통등연구회 전영일 공방 -

밝게 빛나는 한지 등을 보면서 필시 종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붉게 물든 불을 보면 이게 살아있는 건 아닌가 스욱 만져보게 된다. 붉은사를 물들인 은은한 불빛이 더욱 아련한 밤이다.



절구통과 향아리가 있는 초가집 풍경

전통 등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발의 기억

이번이 11회째 전시회다. 지난 몇 회의 전시와 작업으로 대중들에게도 많이 친숙해진 탓에 이번 전시도 제법 유명세를 탔다. 첫 전시보다 더 고민이야 많지만 이렇게 자식 같은 작품들을 보고 있다면 뿌듯한 마음이라는 전통등연구회의 전영일 선생이다.

“친구 따라 시작했던 전통 등 복원하는 작업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 이번이 열한 번째 전시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등학교 미술부 동기였던 녀석의 권유로 시작된 작업이 제 평생 업이 되었네요.”

사찰이 주축이 되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복원 작업이 이 전시를 만들게 한 장본인인 셈. 처음 복원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 단순히 등을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등에 대한 자료의 부족이었다. 전통 등 문화는 시대에 따라 쇠퇴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면서 제 몸을 갖추어 왔으나 일제시대 때 문화 탄압으로 거의 사멸하다시피 한 것. 일본은 그렇게 우리의 세시풍속과 놀이를 금지시켰다.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등 문화는 자유롭고 서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형태였다면 일본이 강요한 방식은 등을 들고 3~4열로 행진하는 제등행렬의 형태였다. 규격화되고 서열화된 등 문화는 그나마 현재 겨우 이런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산과 구름, 호랑이가 어우러진 풍경이 흥미롭다.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던 전통 등 문화

“우리의 전통 등 문화는 어디 한번 놀아보세, 하는 놀이마당이었습니다. 남녀의 구분과 반상의 차별이 엄하게 적용되었던 시대, 이 날만큼은 서로 어깨도 부딪히고 화합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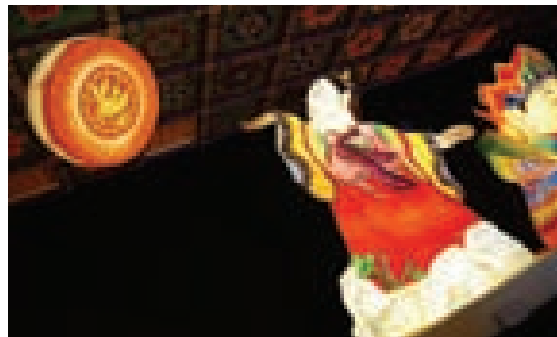
등을 가지고 놀던 이 날만큼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었다. 형식의 재현 뿐만 아니라 등을 밝히며 한판 구성지게 놀았던 그 축제의 현장까지 가져올 욕심이 생겼다는 전영일 선생이다.

“애초에 제가 원했던 건 바로 그런 놀이문화였어요. 강의를 나가면 오히려 미술대학 학생들은 틀에 갇혀서 자유롭게 표현하길 주저합니다. 잘 만들려고 하니깐 당연한 거죠. 그들은 그걸 작업으로 보니까요. 반면 어린 아이들은 등을 만들거나 밝히는 일이 주저 없이 놀이라고 생각해요. 규격에 꼭 맞지 않더라도 즐길 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일 선생은 삶에 가까이 두고 누구나 즐겼던 것이 바로 우리의 등 문화였다고 말한다. 전통의 복원으로써 옛 것을 이어가는 것 자체도 유념해야 하지만 그 때처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또한 옛 것의 복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 시대와 함께 호흡하길 소망한 것이 열한 번째 전시로 이어지는 원동력인 것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자사천왕 중 증장천왕. 연등축제 퍼레이드의 선두에 서는 등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이미지화한 작품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옛적 이야기를 담은 등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이번 전시의 테마는 ‘옛날 옛적에’다. 보우당에 들어서면 이야기의 향연이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의 옛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다는 전영일 선생은 등 작업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심었다. 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밝음과 지혜 등을 살릴 수 있는 전래동화나 신화적 요소를 차용해 작업한 것이다. 등 자체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던 셈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 목소리가 들려올 듯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나, 박이 넣을 올라간 초가집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동화책을 보는 펼쳐보는 기분이다. 전시를 보고 있자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더욱 그리워진다. 할머니의 목소리 대신 한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다.

“예술이라고 어렵고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쉽고 보면 즐겁고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마음을 담은 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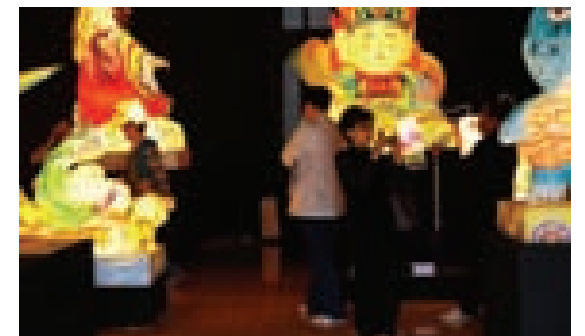
전통 등이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길 바란다는 전영일 선생. 그의 바람이 오늘도 보우당의 등을 밝힌다. ☺



익살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이 재미있다



동생을 업은 누이



오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인다. 사진을 찍는 한 관람자



등에 관련해 설명을 듣는 외국인. 등에 관심이 있어 일부러 관람하러 왔으며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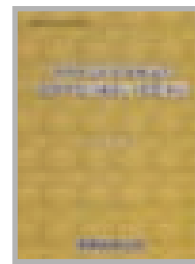
책갈피



安東雄府 안동의 지정문화재

안동문화원 발행

유교를 중심으로 한 안동문화권은 조선 초기 영남 사림세력이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퇴계 학맥의 형성으로 영남학파의 중심역할을 해 오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유교적 정신문화 계승에 충실해 왔으며 향교, 서원을 비롯해서 씨족을 중심으로 한 종가 등이 지역문화의 특성으로 자리잡아오면서 고택문화와 기록문화의 보존에서도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서 있다. 안동시를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를 칼라 사진판으로 각각 수록해 놓고 뒷면에는 그 문화재에 대한 해설도 함께 실고 있다.



제주에서 선비의 얼을 심은 고려유신(高麗遺臣) 한천(韓臧)

남제주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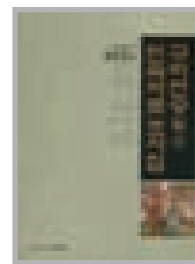
한천은 청주한씨의 시조 한람의 11세손으로 아버지인 한대순(韓大淳 : 충정왕과 공민왕 때 知都僉議司事)과 진현관대제학 전신(全愼)의 따님인 어머니를 양친으로 한 공신의 가문이요 누대에 걸친 권세명문의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20대 초반에 국자감시에 급제하였고 30대 중반에는 정3품 당상관 반열에 올라 국사(國誌)를 주재할 정도의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공민왕 시해사건의 주모자인 한안(韓安)과는 종형제 간으로 연좌제에 의해 귀양길에 오르기도 했으나 고려왕조의 쇠퇴와 함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등 조선왕조의 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과정에서 한천의 학문과 사상을 접할 수 있으며 당시 예문관대제학인 한천은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제주도 유배지를 택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선비로서의 정신세계를 읽을 수 있다.



군포설화 그림동화 - 설화랑, 그림이랑

군포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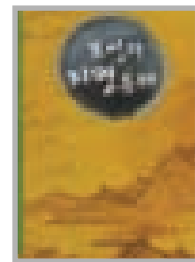
2007 설배문화학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군포설화' 사업으로 진행된 성과물로서 어린시 서른 분이 군포설화를 주제로 '문화 · 예술교육'을 받고 그려진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조사 발굴한 108편의 '군포설화 · 민담' 가운데 각 동별로 한 편씩 선정하여 어린이나 어른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림동화책이다.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화성문화원 발행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한 화성시는 다른 지역의 도시화와 달리 택지개발과 정책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수십 개 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마을과 함께 떠나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예전의 소중한 구비문화 및 민속자료의 제보자인 어르신들의 별세로 조사의 실체와 주체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봉담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각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민간요법, 설화, 입향조, 지명유래, 민요·놀이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보성의 지명유래

보성문화원 발행

정형철 보성문화원장은 이 책의 발간사를 통해 "한 고장의 땅이름에는 그곳에서 살아 온 우리 조상님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 그리고 낭만과 해학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런 제방쯤으로나 남아 있는 작은 보에도, 길가에 흔한 바위 하나에도, 마을 앞 당산나무에도, 손바닥만 한 논과 밭에도 이웃과 소통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물과 흉년을 이기고 풍년을 허구했던 조상님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설움, 내일에 대한 희망들이 알알이 맺혀 있습니다."라고 한 말과 같이 보성군 2읍 10면(보성·별교읍, 노동·미력·경백·울어·북내·문덕·조성·득량·회천·웅치면)에 속해 있는 각 마을별 지명에 대한 유래를 광범위하게 상술해 놓았다.

책갈피



고향언덕에서 부르는 노래

무안문화원 발행

무안 출신 63인의 문인들이 남긴 450여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무안군 시문학 작품선집을 발간하였다. 서오근 문화원장은 '무안 사람들은 이 땅에 배어있는 시를 대할 때마다 선조들의 지랑스러운 외침을 듣고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은 뚫민해진다'고 감회의 일단을 나타내는가 하면 목포대 국문과 허영만 교수는 '고향사랑에서 자신의 성찰에 이르는 시혼'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세계에 대한 하나하나의 시평을 해 놓음으로서 일반대중에게도 한편의 시가 친숙하게 다가온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조치원문화원 발행

연기군은 북쪽의 전의(全義), 중심지가 연기(燕岐), 남쪽을 금남(鎭南)으로 크게 세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면과 금남·동면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책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지만 이곳의 마을은 그 이름과 유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범위가 연기군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설 뒤에 올 문화파괴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아름다운 마을 이름과 유래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조치원문화원 임영이 원장은 밝히고 있다.



추사 자료의 귀향

과천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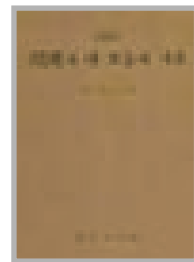
조선시대 금석학의 대가이자 시·서·화에 두루 능했던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자료가 일본으로부터 과천문화원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2005년 12월부터 추사 자료 조사 및 인수추진 등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2006년 1월 2,739점의 자료에 대한 인수 기증협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2월 26일자로 2차 기증자료 관련 협의서가 채택되었다. 기증자인 후지츠카 아키나오는 일제 때 추사연구의 대가였던 일본 학자 후지츠카 지카시(1879~1948)의 아들로서 그의 선친이 평생 모아 자택에 소장해온 추사 관련 고문헌 사료들을 과천시 여인국 시장과 과천문화원 최중수 원장을 상대로 인수 기증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서가 체결되고 인수 인계과정에서 수 십 차례에 걸친 서신왕래와 기증자의 자택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추사 자료의 귀향의 이루어지기까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주논개 추모시선집

장수문화원 발행

장수문화원 고두영 원장은 '남강에 지고 핀 꽃님'이라는 제하의 발간사에서 의미 주논개를 추모하면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논개 추모시와 금석문을 모아 시선집을 발간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931번의 외침을 당하여 왔으며 몇 번의 망국의 고비마다 천우신조의 도움으로 어려운 환란을 이겨내며 남북분단의 아픔이 반세기동안이나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서게 된 것은 논개와 같이 살신성충의 애국 열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왔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문경의 옛 모습과 이름

문경문화원 발행

문경문화원 체대진 원장은 발간사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말은 세월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신이나 내, 마을 등의 이름은 우리 말로 지어져서 후에 한자로 표기될 때에도 이두로 음차(音借)하거나 훈차(音借)를 하여 원 이름을 잃지 않으려 하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 사는 모습이나 사물의 모양새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하기도 하여 기록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뒷 사람이 더듬어 알기도 쉽지 않다고 이 책 발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문경시 2읍(문경·가은)과 7면(영순·산양·호계·신북·동로·마성·농암), 점촌동부(店村洞部)의 연혁과 자연, 유적, 수리시설, 도로, 학교, 마을의 모습과 이름 등을 자세히 실고 있다.

2008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교육을 마치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옹골찬 교육한마당을 펼치다”

지난 5월 21일~24일(3박4일) 남도의 정취와 멋이 살아있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 교육이 이루어졌다. 참가인원은 총 36명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받은 34명이 수료하였고, 교육생 모두 자기계 발에 적극적인 분들로 교육성과 또한 매우 높았다. 「지역문화경영과정 운영위원회」는 매년 설문조사와 종합 평가를 통해 본 과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지역맞춤형교육프로그램**”, “**숙식제공을 통한 교육생간의 유대강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신설된 “지역문화스토리텔링”과 “문화정보 활용실무” 과목은 반응이 매우 좋았다. 한편, 필기시험은 교육생들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긴장감과 교육성취도를 높이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과정은 문화원인력의 전문성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원의 진정한 인력양성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과정의 수료자들은 문화원의 기둥으로, 앞으로 그 빛은 더욱 발휘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이홍재 원장님(전주정보영상진흥원)께 감사드립니다.

(※중급과정 강릉과 경주에서 실시 예정)

2008 지역문화경영과정 교육생 / 초급과정



수료생 참가소감

- 정 영 준/최우수수료생 (경산문화원 사무국장) -

먼저 4일간의 교육을 무탈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문화원에서 필요한 과목인 지역문화해설방법, 지역문화스토리텔링, 문화정책론 등 다양한 과목과 수강생들의 열의와 불타는 학구열로 진지하고 알찬 교육이 되었고, 분임 토론에서는 각조의 협동심과 각 문화원의 상호 정보교환의 장소로도 활용된 점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숙박 시설과 음식이 조금 불편했지만 배움이란 조금 힘들어도 도움이 된다면 보람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국문화원이 많은 교육생의 참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각 지역 문화 창달과 더 발전된 위상으로 지역문화에 이바지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김 지 민/우수수료생 (부산남구문화원 간사) -

안녕하세요,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225번째 막둥이식구 부산남구문화원의 김지민입니다. 이번 '2008년 지역문화경영과정'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리로 배우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슴에 새겨올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 속에서 진행된 교육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저희 4조 여러분들이 그림습니다. 우리 언제 또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두런두런 둘러앉아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더없이 즐거운 기억들이 것 같습니다. '기억은 나이를 먹어 추억이 된다' 고 했으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전주에서 함께한 '즐거운 기억'들이 '행복한 추억'으로 옹골차게 매듭지어 있겠지요?



종합발표 _ 정찬영



교육모습 _ 심오섭



현장견학



종파티

회장단 일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방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단과 감사 일행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을 예방했다. 연합회 회장단과 상견례를 갖는 자리에서 유 장관은 '미래 사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하면서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권용태 회장은 종전 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온 지방문화원 예산을 참여정부가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면서 전국 문화원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지방문화원 분권교부세를 국고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전국 225개 지방문화원장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문화 예술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에 헌신한 유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패를 전달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08 운영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정관 제21조에 의거 4월 28일 오전 11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2008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홍천문화원 장재찬 원장을 전원 일치로 추대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은 김이기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이 지방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바 있는 지방문화원 지원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 운영위원 명단〉

고 상 권 (영등포문화원장)	이 원 달 (서울 강동문화원장)
김 문 경 (구리문화원장)	장 재 찬 (양평문화원장)
염 돈 호 (강릉문화원장)	이 용 먼 (예산문화원장)
정 정 희 (당진문화원장)	서 승 (전주문화원장)
원 용 호 (강진문화원장)	권 창 호 (포항문화원장)
김 교 승 (구미문화원장)	차 판 암 (합천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4기)1차회의

한국문화원연합회는 4월 30일 오전 11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2008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4기)1차회의를 열고 제이에스씨어터 표재순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정책개발과 각종 용역사업의 수행을 비롯하여 연합회가 의뢰하는 제반 정책사업의 자문을 위해 1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4기)〉

강 석 호 (한국수필문학가협회 회장)	윤 영 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강 진 갑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경기문화연구소장)	이 종 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곽 효 환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이 흥 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원장)
권 병 응 (중앙대 국악대학 교수)	임 연 철 (중앙대 예술대학원 초빙교수)
김 보 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 팀장)	정 순 영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 토지문화제 추진위원장)
김 종 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조 정 국 (팍스아이즈 고문)
박 영 수 (2008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위원장)	표 원 섭 (청주대 공연영상학부 교수)
윤 성 진 (공연예술기획 이일공 대표)	표 재 순 (연출가/제이에스씨어터 대표)

신임 지방문화원장 연찬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2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신임 지방문화원장 연찬회를 가졌다.

금년 1월 이후 취임한 서울 광진문화원 신길웅 원장을 비롯해서 26개 지방문화원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찬회에서 '지방문화원장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박영수 전 청주문화원장의 강의와 '성공적인 향토사연구 발전방안'에 대해 최중수 과천문화원장의 사례중심의 강의를 받았으며 권용태 회장과 대화 및 장상호 총무국장의 연합회 사업설명 시간에는 참석한 많은 원장으로부터 '지방문화원장의 위상 제고방안' '재정문제' '직원 급여의 현실화' '업무편람 제작 및 보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열띤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2008 지방문화원 국고 및 기금지원 현황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08년도 국고지원금 5억80만원에 대해 향토사 대중화시범사업으로 1억 6,800만원(1문화원 당 600만원×28문화원)과 지방문화원 문화교류사업에 3,900만원(1문화원 650만원×6문화원) 다문화정책사업비 3억400만원(1문화원 당 1,600만원×19문화원)을 각각 배정하였다.

그리고 복권기금에서 지원받는 11억원에 대해서는 1,100만원씩 전국 100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7,110만원은 14개 문화원에 대한 인턴사원의 6개월 분 인건비가 지원된다

경상남도 문화원장 연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지회장 조훈래)는 5월 28일 오전 11시부터 합천문화원에서 도내 20개 문화원장을 대상으로 '2008 상반기 문화원장연수회'를 가졌다.

합천문화원 차관임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심의조 합천군수는 축사를 통해 도내 문화원장 연수회를 산자수명한 합천에서 갖기로 한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성공적인 연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훈래 지회장의 인사와 함께 제2회 도지사배 사투리 말하기대회의 개최요강 및 개요와 향토지 편람발간 및 문화원장 해외연수계획을 포함하여 사무국장, 간사에 대한 연수회 개최의 건 등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있었으며 오후 시간에는 해인사에 대한 불교유적 답사가 이루어졌다.

2008 제2차 이사회

권용태 회장 사직 - 이선재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한국문화원연합회는 5월 2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8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권용태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연장자인 이선재 부회장(마포문화원장)을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선재 회장직무대행은 후임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6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후임 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성실히 대행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하면서 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권용태 회장은 이사회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연합회 임원을 비롯해서 지방문화원장,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 중첩 등의 이유로 사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미력하나마 지역문화 창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2008 임시총회

제 26대 회장에 최종수(과천) 원장 선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6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국 184명의 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시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142표를 득표한 과천문화원 최종수 원장을 선임했다. 신임 최종수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 26대 한국문화원연합회장에 취임하여 전임회장의 잔임기간인 2009년 2월 14일까지 재임하게 된다.



당선인사

훌륭하신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매우 큰 짐이 양 어깨에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원장님들이 함께 느끼는 일로서 문화원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한 가지라도 더 해결하고 더 진취적으로 해 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문화원 모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췌로 여러분의 뜻에 가능하면 다가가고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동정

부산 사상문화원장에 김진홍씨



부산 사상문화원은 지난 2월 15일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진홍(金珍洪 55)씨를 제3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뒤이어 열린 취임식에서 윤덕진 사상구청장과 조홍래 사상구의회 의장, 권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의원 및 구의원, 문화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김 원장은 '창립 9년을 맞는 사상문화원의 모든 사업이 8년의 활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능동적인 변화, 적극적인 혁신'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힘차게 뻗어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장과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부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 남구문화원장에 성재영씨



지난 5월 8일 전국에서 225번째로 개원한 부산 남구문화원은 작년 12월 18일 문화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성재영(成宰榮 63)씨를 원장으로 추대했다.

초대 원장에 선임된 성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앞으로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산 남구의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성 원장은 동아대 대학원에서 학위(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부산시의회 교통항만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과 부산시협의회장 등을 맡아왔으며 현재 영남통운(주)과 동남여객(주) 회장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중구문화원장에 김덕영 씨



대구 중구문화원은 지난 3월 18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덕영(金德永 56)씨를 제 4대 원장으로 추대하고 3월 28일 대구은행 본점 그린나래 레스토랑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조해녕 전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문화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에서 역사가 깊고 또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문화원의 명실상 부한 위상정립과 문화행사의 질적 향상 및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결속력 강화에 힘쓰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양대 외과대학을 졸업하고 계명대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동대학 성형외과 교수 및 대구가톨릭병원 성형외과 과장, 대한성형외과학회 경북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김앤송성형외과 원장, 대구보건대학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동구 팔공문화원장에 김사열 씨



대구 동구 팔공문화원은 지난 2월 28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사열(金思悅 52)씨를 제3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4월 29일 문화원에서 대구 동구의회 정홍표 의장과 대구예총 최영은 회장, 대구문화예술회관 박명기 관장, 대구예술대 장영목 총장, 대구시립국악단 주영위 상임지휘자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린 유익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로 팔공문화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북대 대학원 생물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덴마크 코펜하겐대 분자생물학연구소 생물화학과를 수료한 김 원장은 예술마당 솔 이사 및 기획위원과 대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시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수성문화원장에 이영배 씨



수성문화원은 지난 5월 9일 문화원 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영배(李英培 56)씨를 제2대 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새로 선임된 이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문화와 함께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이 변화하기를 꿈꾸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을 드리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호수산업 대표로서 기업 경영을 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작품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인제문화원장에 정병석 씨



인제문화원은 지난 5월 7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한 끝에 53%를 득표한 정병석(丁炳碩 72)씨가 제8대 원장에 선임되었다.

5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인제군수를 비롯해서 인제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및 인제교육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정 원장은 향토사연구소의 활성화와 전통 산촌문화마을 조성사업, 내셔널 문화유적지 보존 및 관광화 사업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정 원장은 중앙대를 졸업하고 초대 인제군의회 의원과 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함평문화원장에 정원강 씨



함평문화원은 3월 11일 오전 11시 함평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정원강(鄭元強 78)씨를 제9대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4월 21일 취임식에서 신임 정 원장은 '함평문화 가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고장의 전승문화 보존 계승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정 원장은 목포고를 졸업하고 초대 함평 민선 군수와 전남도의회 의원 및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왔다.

경주문화원장에 오해보 씨



경주문화원은 지난 3월 29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오해보(吳海輔 70)씨를 제5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6월 3일 문화원에서 주요 기관 단체장과 도내 문화원장 및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오 원장은 경주문화원의 위상과 경주시민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 봉사직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계명대 경영대학원과 경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오원장은 경상북도 보건환경국장과 성주군수 및 경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동안 문화원 부원장으로 헌신해 왔다.

서귀포문화원장에 김병수 씨



서귀포문화원은 지난 2월 29일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대 문화원장에 2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한 결과 58%를 득표한 김병수(金炳洙 65)씨가 당선되었다.

3월 28일 서귀포시민회관에서 서귀포시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시의회 문화관광위원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시민의 문화 향수권 충족과 서귀포의 중추적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제주사범대와 부산교육대학을 졸업한 김 원장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화 원장(고향), 국사편찬위원회 전라북도사료조사위원협의회장에 추대



4월 26일 전북대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 전라북도사료조사위원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에서 고향문화원 이기화 원장이 새 협의회장에 추대되었다.

이 협의회는 1980년대 초 지역별로 향토사료의 조사, 수집, 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의 향토사학자들을 망라하여 조직·구성된 단체로서 향토에 묵혀있는 문헌기록을 비롯해서 구술사자료에 이르기까지 수집 정리하는 순수학술모임체이다.

임기 3년간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 원장은 1970년 고향향토문화연구소를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 향토사 수집 정리에 힘써왔다.